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論文

일제시기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

A Social Movement of Cheondo-gyo party

Local Elite in Eonyang during Colonial Period

2010년

울산대학교 대학원

역사문화학과

정계향

일제시기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

지도교수 허영란

이 논문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역사문화학과
정계향

鄭桂香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서정훈 (印)

審査委員 양상현 (印)

審査委員 허영란 (印)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0년 12월

국 문 요 약

일제시기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

정계향

최근에 지역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일제시대에 대한 연구 경향도 변화하고 있다. 수탈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역사연구에서 벗어나, 식민지를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식민지 현실 속에서 독립국가 건설과 근대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각 지역에서 청년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의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이 사회운동의 주도층을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인가가 일제시기 연구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일제시기 언양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천도교’를 수용하며 지역의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언양은 전통적으로 천주교나 불교의 세력이 강한 곳이었고, 천도교는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포교가 이루어져서 경상도에서는 그 세력이 약한 편에 속했다. 그러나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은 1910년대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며, 지역의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금까지 전개된 천도교 혹은 천도교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중앙교단과 지도부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에 지역 천도교인 활동에 대한 연구가 점차 축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정시기, 특정사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천도교인의 활동을 다루지만, ‘천도교’에 무게중심을 두고 연구가 전개되었기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잘 보이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일제시기 천도교인의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은 식민지 현실과 연관되어 있고, 종교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시 활동 내용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천도교인의 사회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일제시기 언양 천도교인들의 사회운동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언양의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천도교인들은 대부분 천도교 전래 이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된 사람들이다. 일제시기 전반에 걸쳐서, 천도교 신자가 되고 지역의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그 세력이 위축되는 변화를 겪었다. 그 과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방식의 변화와 언양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졌다. 일제시기 전반에 걸쳐 언양 천도교 신자들이 지역사회운동에 참여했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고, 이를 통해 언양 지역사회의 특징 및 변화 양상을 살피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1차로 활용한 자료는 천도교 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료들이다. 언양교구에 남아있는 포교일지인 《연원록》과 천도교 신자들의 의연금 납입내역이 기재된 《비고장》, 천도교의 공적 문서인 《공함》을 통해 천도교 신자들의 양상과 천도교 활동을 파악했다. 신문기사와 연구논문, 조선총독부 문서를 통해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지역사회활동을 분석했다. 문서로 남아있지 않은 천도교 신자들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구술인터뷰 자료도 활용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에서는 일제시기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의 사회운동을 연구하게 된 목적을 밝히고, 지금까지 천도교 민족운동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사를 정리했다.

2장에서는 언양에 천도교가 전래되고 포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초기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천도교인들이 언양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피고 3.1운동이 언양 천도교인들에게 미친 영향도 정리했다. 1910년 언양에서는 최해규가 천도교에 입교하면서, 언양에 교구가 설치되고 천도교가 전래되었다. 포교는 형제, 이웃, 문중, 학맥, 혼맥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두고 이루어졌고, 연원으로 결합되면서 신자들 사이의 결속력은 더욱 커졌다. 언양에서 천도교 세력은 점차 확산되었고, 1919년에는 천도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언양에서의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3장에서는 1920년대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사회운동에 대해 분석했다. 1920년대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활동은 울산 읍내의 천도교 신자들과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1914년 언양군이 울산군으로 통합되었지만 그 이전까지 언양과 울산은 별개의 지역으로, 각 지역에는 별개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 영향으로 언양과 울산 읍내의 천도교 신자들은 서로 지도를 받는 천도교 교단도 달랐던 것이다. 언양 천도교 신자들은 천도교연합회의 지도를 받았지만 중앙교단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언양에서는 천도교유신청년회와 같은 천도교 활동 단체가 결성되지 않았다.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사회운동은 1920년대 지역사회운동의 일반적인 양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활동에서 분화가 나타났다. 하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교육운동, 언론활동, 개량주의 단체 등이다. 다른 하나는 젊은 천도교 청년들이 활동하는 혁신청년회 중심의 청년운동이다. 운동은 두 개의 방향으로 분화되었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공유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했다. 천도교적 운동단체는 결성되지 않았지만 1920년대에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고 천도교 신자들 사이의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천도교 신자들이 사회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교집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천도교였다. 이들은 천도교를 통해 지역엘리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1930년대 언양 지역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천도교 세력의 위축 및 새로운 모색을 서술했다. 이 시기 식민체제는 더욱 견고해졌고 지역의 사회운동 단체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언양 천도교의 경우도 교단의 친일화와

일본의 탄압으로 활동의 폭이 좁아졌다. 1930년대 들어 언양 지역민들이 지역발전과 개발 문제에 주로 관심을 두면서 언양 지역사회운동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합법적 영역에서 당국과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역엘리트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 운동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개량화한 일부 천도교 신자들은 1930년대 언양에서 활동을 이어갔지만, 나머지 천도교 신자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못했다.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위축은 언양 천도교세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해방공간에서 천도교 신자들은 새로운 활동을 모색했고, 단절되지 않은 움직임은 언양교구가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일제시기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을 통해 식민지기 언양을 들여다보았다. 언양 지역에는 당국의 지배와 피식민지민의 저항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배, 저항, 협력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지역민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었고 지역사회의 변화는 다시 지역민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 당국의 식민지배 방식의 변화가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다. 일제시기 지역의 모습과 그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역사 연구가 가지는 다각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역사, 천도교, 언양, 울산, 3.1운동, 천도교연합회,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 양정학원, 중남수리조합, 시대청년회, 사사회

《목 차》

I. 서론	1
1. 문제의식	1
2. 연구의 범위와 자료	4
II. 천도교의 언양 전래와 3.1운동	7
1. 천도교의 언양 전래와 초기 천도교도	7
2. 언양 천도교도의 활동과 천도교세의 확산	12
3. 언양 3.1운동과 천도교	21
III. 1920년대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	29
1. 1920년대 언양 천도교와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	29
2.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	34
3.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성격	44
IV. 1930년대 이후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위축	48
1. 식민체제의 강화와 언양 지역사회운동의 변화	48
2.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위축과 새로운 모색	50
V. 결론	56
《참고문헌》	58
《부록》	62
ABSTRACT	69

《표 목차》

<표1> 성미대금 영수 내역	15
<표2> 언양교구 의연금 납부 내역	17
<표3> 언양의 3.1운동 주도자	22
<표4> 천도교 청년의 활동단체 및 활동내용	41

《그림 목차》

<그림1> 언양지역 행정구역의 변천	5
<그림2-1> 언양 초기 천도교 신자들의 연원 관계	9
<그림2-2> 언양 초기 천도교 신자들의 관계	10
<그림3> 성미대금 영수증 사본	14
<그림4> 성미대금 영수내역	16
<그림5> 일제시기 현미 가격	16
<그림6>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활동	45

I. 서론

1. 문제의식

최근에 지역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일제시대에 대한 연구경향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수탈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역사연구에서 벗어나 식민지 지배 구조가 지역 안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지역민들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일제시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¹⁾

식민지를 살았던 조선인 중에는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를 당면 과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은 각 지역에서 청년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교육운동 등의 사회운동을 이끌었다. 이 사회운동의 주도층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범주화할 것인가가 일제시대 연구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명망가, 관료유지와 혁신청년집단, 지역엘리트라는 용어로 정리되고 있고²⁾ 최근에는 지역유력자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³⁾

일제시기 언양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일제시기 언양에서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가문 출신이었거나, 근대교육을 통해 성장한 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일부는 ‘천도교’를 수용하며 지역의 사회운동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언양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조선후기 이래 전통적 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한 곳이었다. 이른 시기부터 박해를 피해 도망 온 천주교 신자들의 공동체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천주교 세력이 성했고, 인근에 통도사 같은 큰 절이 있어 불교 세력도 비교적 강한 곳이었다. 이런 언양에 1910년 천도교가 전래되었고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은 포교활동, 계몽운동을 통해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을 축적해갔다. 1919년 언양장에서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1920년대 언양지역 사회

- 1) 김민철, 『조선총독부의 촌락지배와 촌락사회의 대응 -1930~40년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김대호, 「1910~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 -경성신사의 운영과 한국 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2008 ; 허영란, 『일제시기 장시 연구 -5일장의 변동과 지역주민』, 역사비평사, 2009 ; 허영란,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1919년 3월 1일에 묻는다』, 성균관대출판부, 2010 ; 이용기, 「일제시기 지역사회에서 전통적 권위질서의 지속과 변용」 『역사문제연구』 No.21, 2009 특히 이용기의 연구는 조선이래의 전통적인 질서가 식민지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변용 하는지에 대해 장흥군 용산면의 유력가문과 향교 교임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식민지시기 지역사회의 모습을 미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 문영주, 「1920~1930년대 금융조합 유치운동과 지역사회」 『역사문제연구』 No. 21, 2009 ; 정미성,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전반기 조선총독부의 면 재정 정비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현실』 제56호, 2005
- 2) 김익한, 「일제하 한국 농촌사회운동과 지역 명망가」 『한국문화』 17호, 1996 ; 지수걸, 「일제시기 충남 부여-논산군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한국문화』 35호, 2005 ; 박찬승, 「근현대 당진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7권 제2호, 2004 ; 김승,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 3) 이용기, 「일제시기 면 단위 유력자의 구성과 지역정치」, 『대동문화연구』 제67집, 2009

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엘리트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되었다.⁴⁾

동학에 뿌리를 둔 천도교는 1905년 손병희에 의해 개창되었다. 주로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포교가 이루어졌는데, 경상도의 천도교세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약한 편에 속했다. 언양에서 천도교가 수용된 배경은 무엇이며, 천도교 신자들 중 일부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지역 사회운동을 전개했을까? 이들의 활동이 식민지기 언양의 지역성과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을까? 이런 의문점에서 이 논문은 출발했다.

천도교 및 천도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을 다룬 연구와 조선농민사를 거론하면서 천도교청년회의 활동을 단편적으로 거론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었다.⁵⁾ 서구 중심의 근대화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기독교 계통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천도교는 연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더구나 식민지 말기 천도교 지도부의 노골적인 친일전력과 분단상황으로 인한 교단의 분리는 천도교의 약화로 이어졌고 연구 경향에도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사회주의 좌파계열의 활동과 청년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종교계 청년단체의 활동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일제시기 천도교의 민족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천도교 내부 각 세력의 분파 및 이들의 활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천도교를 이끌었던 초기 지도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⁶⁾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이 수용되면서 역사학에서도 미시사, 일상사, 지역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연구대상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에 활용하는 자료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천도교 연구도 이런 경향에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에는 지도자 뿐 아니라 천도교 신자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 때 자료로 많이 활용된 것은 천도교에서 발간한 잡지였다. 『천도교회월보』, 『만세보』, 『개벽』 등, 잡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천도교 지도자의 사상 및 민중들의 삶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⁷⁾ 또 이 시기에는 중앙이 아닌 지방 천

4) 언양에서 활동했던 천도교 신자들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지역엘리트로 정리한다. 이들은 대체로 일제시기에 천도교를 수용하면서 새롭게 지역에서 부각된 사람들로, 활동 배경에 명망성이나 당국의 신임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지역사회운동에 실제로 참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엘리트로 성장해갔다.

5) 박현서, 「삼일운동과 천도교계」 『삼일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 지수걸, 「조선농민사의 단체 성격에 관한 연구 ; 천도교청년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06, 1985

6) 이용창, 「1920년대 천도교의 분규와 민족주의 운동」,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정인, 「1910~25년간 천도교 세력의 동향과 민족운동」 『한국사론』 32, 1994 ;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 조규태, 「천도교청년동맹의 조직과 활동」 『충북사학』 9, 1997 ; 조규태, 「천도교구과와 신간회」 『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 이준식, 「최동회의 민족혁명론과 코민테른」 『역사와 현실』 32, 1999 ; 윤해동, 「한말 일제하 천도교 김기전의 ‘근대’ 수용과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7) 김정인,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역사와 현실』 57, 2005 ; 김정인, 「1910년대 『천도교회월보』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한국문화』 30, 2002 ; 김정인, 「『만세보』를 통해서 본 천도교의 정치개혁론」 『동학연구』 제13집, 2003 ; 허수, 「1920년대 개벽의 정치사상」 『정신문화연구』 112, 2008 ; 허수, 「1920년대 초 『개벽』 주도층의 근대사상 소개양상」 『역사와 현실』 67, 2008

도교인의 활동을 다룬 연구도 이루어졌다. 지역 내 3.1운동과 천도교의 역할을 다룬 연구와 만주와 상해지역 천도교인의 활동을 다룬 연구가 있다.⁸⁾ 이 연구들은 1920년대 천도교 민족운동이 지역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피는데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1930년대나 해방이후의 천도교의 정치운동을 다룬 연구도 이루어져⁹⁾ 연구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천도교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중앙교단의 활동이나 지도부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새로운 역사 연구경향이 도입되면서 지역의 천도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천도교인들의 3.1운동에서의 역할이나, 지역 내 천도교의 포교 상황, 천도교인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민족운동의 구체적인 양상 등이 연구의 주된 주제였다.

지역 천도교인들의 활동양상에 대한 연구는 점차 축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정시기, 특정사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10년대의 지역 천도교인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천도교인들의 활동은 민족운동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지역 천도교인의 활동을 다루지만, ‘천도교’에 무게중심을 두고 연구가 전개되었기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천도교는 종교였지만, 천도교 중앙교단은 종교적 단체 뿐 아니라 사회운동 단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천도교인들 역시 중앙교단의 지도를 받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지역 내에서 각종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천도교 신자들의 사회적 활동은 식민지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식민지 현실과 연관되어 전개된 측면이 컸다. 그래서 지역 천도교인의 활동을 통해 식민지 시기 지역의 모습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다. 일제시기 천도교인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모습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시기와 범위를 모두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언양 천도교인들의 사회운동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언양의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천도교 신자들은 대부분 천도교 전래 이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된 이들이었다. 일제시기 전반에 걸쳐서, 천도교 신자가 되고 지역의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그 세력이 위축되는 변화를 겪었다. 이들은 언양과 울산의 군면 통폐합이라는 행정적인 변화를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체험했다. 언양이 울산군에 합군되면서 언양과 울산도 같은 교구로 묶인 것이다. 이 일은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의 활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고, 이를 통해 행정구역과 실제 주민들의 생활공간 사이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8) 조규태, 「전남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동학연구』 17, 2004 ; 이동근,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성주현, 「1920년대 경기지역의 천도교와 청년동맹활동」 『경기사학』 4, 2000 ; 성주현, 「일제하 만주 지역 천도교인의 민족운동」 『동학학보』, 2003 ; 성주현, 「1920년대 상해지역 천도교인의 활동과 민족운동」 『문명연지』 16, 2006 ; 성주현, 「일제하 만주지역의 천도교의 포교와 조직(1900-1920)」 『동학연구』 12, 2002

9) 성주현, 「1930년대 만주지역 천도교와 그 활동」 『동학연구』 16, 2004 ; 성주현, 『천도교청년당(1923-1939)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정용서, 『일제하 해방후 천도교 세력의 정치운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이 경험한 이런 변화의 과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방식과 언양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던 특징을 반영하면서 이루어졌다. 일제시기 전반에 걸쳐 언양 천도교 신자들이 지역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일제시기 언양 지역 사회의 특징과 변화의 양상을 살피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언양 천도교인의 활동에 관한 연구는 큰 연구 주제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장미정은 울산의 3.1운동 연구에서 만세시위가 발생한 지역에 따라 언양, 병영, 남창 세 곳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위 주도층과 전개과정에 대해 정리했다. 이 중 언양의 3.1운동을 다루면서 천도교 신자들이 시위 주도층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⁰⁾ 김승은 언양의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에서 언양 천도교 청년들이 청년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양상과 언양 천도교 전래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고, 울산의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¹¹⁾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일제시기 전반에 걸쳐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살필 것이다.

1장에서는 일제시기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의 사회운동을 연구하게 된 목적을 밝히고, 지금까지 천도교 민족운동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사를 정리할 것이다. 2장에서는 언양에 천도교가 전래되고 초기에 신자가 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천도교가 언양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또 1919년 언양 3.1운동에서 천도교 신자들의 역할과 3.1운동이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3장에서는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1920년대 사회운동 양상을 서술하고, 이 시기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분화의 양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1920년대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활동기제 및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체제가 견고해지고 언양 지역사회에 나타난 변화의 양상과 천도교 신자들이 변화된 조건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살피고 이런 대응이 언양 천도교 및 천도교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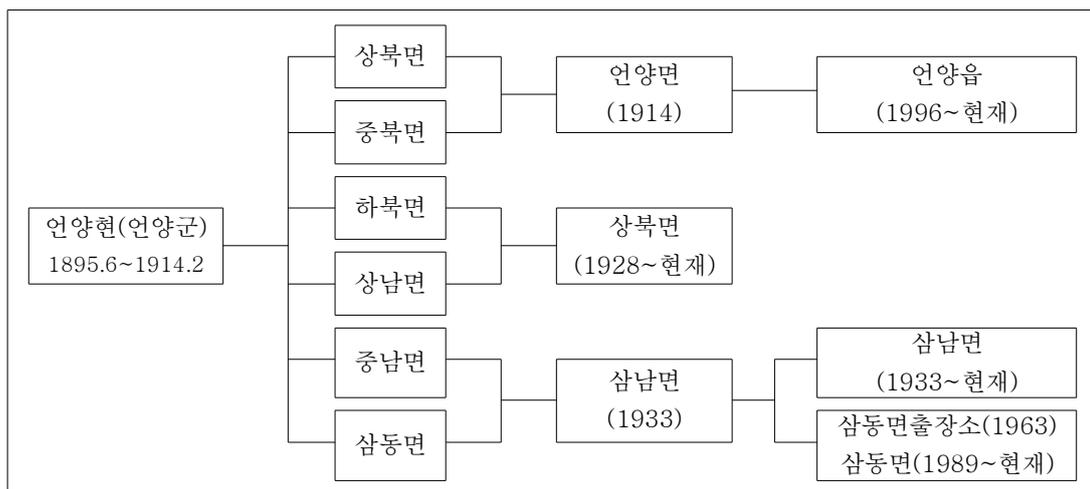
현재 울산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언양은 본래 울산과는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조선시대까지 독립된 현으로 존재했다. 1895년 지방제도 개편 당시 彦陽郡이 되어 上北·中北·下北·上南·中南·下南의 6개 면을 관할했고 군청은 상북면 노동동(路東洞; 현 언양읍 동부리)에 있었다. 1914년에 군면 통폐합에 의해서 언양군은 蔚山郡에 병합되었고 종래 언양군에 속했던 상북면과 중북면이 합쳐져 彦陽面이

10) 장미정, 『울산지역의 3.1운동』,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11) 김승, 「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 운동의 성장과 발전」 『부대사학』 제28·29집 합본, 2005 ; 김승, 「한말 일제하 울산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한국민족문화』 26, 2005

되었다. 1928년에는 상남면과 하북면이 상북면으로, 1933년에는 중남면과 삼동면이 삼남면으로 합면되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몇 차례 행정개편을 겪으면서 언양면은 언양읍으로 승격했고 상북면은 그대로, 삼남면은 삼남면과 삼동면으로 分面되었다.¹²⁾ 행정구역 변화의 양상을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현재는 행정구역상 4개 면이 모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속되어 있다.



<그림1> 언양지역 행정구역의 변천

논문에서 다룬 지역은 일제에 의해 1914년 지방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의 언양으로, 조선시대 및 한말의 행정구역과 일치한다. 이때까지의 언양은 문화적으로 울산보다는 경주에 좀 더 가까웠고, 경주를 통해서 울산보다도 먼저 서울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곳이다.¹³⁾ 앞으로 본 논문에서 언양면이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 언양은 6개면이 모두 포함되는 지역으로 일제시대 행정개편을 겪기 전의 언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1차로 활용한 자료는 천도교 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료들이다. 언양 일대 천도교 포교의 양상과 초기 천도교 신자에 관한 정보는 포교일지인 《淵源錄》과 천도교도들의 의연금 납입 문서인 《備考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천도교의 공적 문서인 《公函》, 《誠米代金領收證》을 활용하여 천도교 신자들의 지역 내 활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일제시기 신문기사 및 각 지역에서 발간한 시·읍·면지와 그에 준하는 도서,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총독부 소속관서직원록》, 조선총독부 《관보》, 《일제경성지방법원편철자료》를 바탕으로 언양 천도교도의 지역 사회활동을 분석했다.

특별한 자료로는 지방 천도교 연구에서 거의 활용된 적이 없는 구술 자료가

12) 일제시기 면에 대해 폐합이 이루어질 때 상남면과 하북면의 경우 합면운동이 있는 후에 상북면이 되었다. 그러나 중남면과 삼동면은 합면 당시 각 면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고 면사무소의 위치 문제를 놓고 양 면간에 갈등이 있었다. 결국 해방 이후 다시 분면되어 삼남면과 삼동면이 되었다.

13) 蔚山政策研究所 獨立運動史 再照明委員會, 2008, 『蔚山の 獨立運動史』, 31쪽

있다. 지금까지 천도교세의 확산과 천도교도의 활동은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와 문서 등의 자료를 주로 활용했기 때문에 천도교도들의 지역 내 활동은 제한적으로만 서술되었다.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2002~2004년 동안 울산지역사연구를 수행하면서 울산과 언양 일대의 노인들에 대해 구술인터뷰를 실시하고 녹취록을 만들었다.¹⁴⁾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 녹취자료는 언양 지역의 천도교도들의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천도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보여주었다.¹⁵⁾ 본문에서 인용한 구술인터뷰 중에서 2002~2004년 사이의 것은 모두 《울산지역사연구 결과보고서》내의 구술인터뷰 녹취를 분석한 것이다. 또 연구 과정에서 필자가 직접 언양 천도교 관련 인물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 한 자료도 일부 활용했다.¹⁶⁾

14)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울산지역사연구 결과보고서》(2002~2004년),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과제번호 : KRF-2002-072-AM1007)

15) 다만 구술에 참여한 이들은 일제시기 언양에서 활동했던 당사자가 아니라 아들이나 손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논문에 구술을 인용할 때에는 다른 정황 상황들을 함께 고려하고, 제한적으로 활용했다.

16) 2010년 11월 14일 천도교 언양교구에서 언양교구장인 이철우, 초대 울산시교구장이었던 이연택을 만나 구술인터뷰를 진행했다.

II. 천도교의 언양 전래와 3.1운동

1. 천도교의 언양 전래와 초기 천도교도

1860년 최제우에 의해 창시된 동학은 2대 교주 최시형을 거쳐 1900년 7월 손병희가 3대 교주가 되면서 중통을 공식화했다. 대한제국 시기 국내에서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면서 동학의 합법화를 요구하던 손병희는 일본으로 망명한 후 이용구를 내세워 진보회를 조직하고 각지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도록 했다.¹⁷⁾ 진보회는 1904년 12월 공식적으로 일진회에 합병되었으며 이어 일진회는 외교권 위임 선언서를 발표하며 친일활동을 했다.

일본에 있던 손병희는 1905년 12월 천도교를 창건하며 조선으로 귀국했고 노골적으로 친일 행각을 하고 있던 일진회 간부를 천도교에서 출교시켰다.¹⁸⁾ 1906년 1월에는 천도교 중앙총부를 설치하고 성문법전인 「天道敎大憲」을 반포하며 중앙과 지방의 천도교 교단을 재정비했다. 손병희는 스스로 대도주가 되어 천도교 내에서 막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동시에 지방으로 교세확장에 나서 서북지방과 호남지방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포덕활동을 전개했다.

천도교는 동학과 마찬가지로 가족단위의 포교방식을 채택했고 종교의례 역시 가족단위로 시행되었다. 천도교 중앙총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각 도·군에 교리강습소를 설치하는 동시에 전국 각 교구 성화실에 야간강습소를 설치하여 민중계몽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실시했다. 또 중앙과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합방반대운동에 참여함으로써 賣國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이 강제로 일본에 병합된 1910년을 기점으로 지식인, 민중들의 천도교 입교는 크게 증가했다. 1910년에 총 27,760호가 입교했으나 이듬해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총 27,600호가 입교하여 4개월 만에 전년도 입교자 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교세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¹⁹⁾ 1910년 이후 천도교 신자가 증가한 데에는 천도교가 민족적인 특성과 근대적인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천도교는 서학에 대항해 만들어진 동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태생적으로 민족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진보회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개화운동을 전개하거나 각지에 강습소를 설치하여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계몽운동을 통해, 천도교의 근대적인 측면도 드러냈다. 천도교 신자의 증가는 亡國이라는 현실 속에서 독립과 근대화라는 과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했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양에 천도교가 처음 전래된 것도 1910년이였다. 상남면의 최해규가 전도를

17) 진보회의 4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一. 皇室을 尊重하고 獨立基礎를 鞏固히 할 事, 二. 政府를 改善할 事, 三. 軍政財政을 整理할 事, 四. 人民의 生命財產을 保護할 事(김정인, 「『만세보』를 통해서 본 천도교의 정치개혁론」, 『東學研究』 제13집, 2003, 78쪽에서 재인용).

18) 출교당한 일진회 간부들은 1907년 4월 5일 시천교를 창건해 일본과 조선의 합방청원운동을 주도했다.

19) 김정인, 「1910년대 『天道敎會月報』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한국문화』 30, 2002, 311쪽

받은 후, 상남면 巨里에 천도교 언양교구가 설치되고, 최해규가 초대교구장이 되었다. 최해규는 본래 단군교의 신자였는데 천도교 포교사 임명수에게 감화되어 천도교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²⁰⁾

최해규가 왜 천도교를 수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최해규가 경주 최씨 집안의 사람이고, 그가 살았던 언양이 경주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이 다. 최해규는 문중 일에 관계하며 직접 경주를 오고갔을 것이고, 최제우로부터 시작한 동학이나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천도교 경주교구가 경주에 설치된 것이 1910년 6월이었는데, 이로부터 3달 뒤 언양에도 천도교 교구가 설치되었다. 교구가 설치되는 시기가 서로 가까운 것으로 보아 최해규가 사전에 경주교구와 접촉이 있었거나, 최해규가 전도사 임명수를 만나는 데에 경주교구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최해규가 이미 단군교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 민족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도교가 가진 민족주의적인 성격은 최해규가 신자가 되는 데에 일정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최해규를 시작으로 언양 일대에 천도교 포교가 시작되었다. 1910년대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내려진 규칙대로 언양에서의 포교도 戶를 단위로 이루어졌다. 전교사의 포교로 천도교 신자가 된 이들은, 다시 전교사가 되어 친척이나 이웃사촌 등 가까운 이들에게 포교를 했다. 포교를 하고, 포교를 받은 천도교 신자들은 서로 ‘淵源’의 관계로 결합되었다.

천도교의 연원은 단순한 포교관계가 아닌 가부장적인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었다.²¹⁾ 연원의 상위에 있는 자는 책임자로 자신의 연원 운영에 관해 책임을 지고 하위에 있는 사람은 상위자를 존경해야 한다. 지방교구에서는 연원을 활용하여 교구 운영을 원활히 하고 誠米를 안정적으로 걷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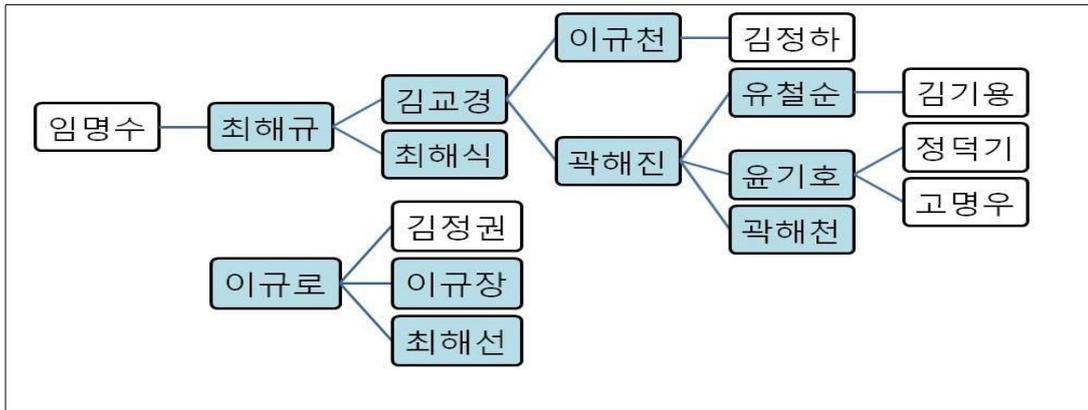
초기 언양지역의 천도교 포교 상황은 포교일지인 《淵源錄》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다.(〈부록1〉참고) 현재 전해지는 《연원록》은 김교경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20년에 일괄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연원록》에는 전도를 한 사람인 전교사의 이름과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의 이름, 나이, 사는 곳 등이 적혀 있었다. 戶主의 인적사항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천도교 신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주로 언양의 상남면, 중남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울산의 북정동과 교동 등 울산

20) 이러한 사실은 언양의 천도교도였던 이갑중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蔚山政策研究所 獨立運動史 再照明委員會, 『蔚山の 獨立運動史』, 2008, 79쪽). 현재 남아있는 언양교구의 《연원록》에도 최해규에게 전도를 한 사람은 임명수라고 기록되어 있다.

21) “연원이라 말함은 곧 선생과 제자사이에 가르치고 배우는 계통의 맥락이니 …… 그 도를 전한 자는 곧 선생이요 도를 받은 자는 제자니 제자가 선생을 위하고 공경함은 사람의 사회가 생긴 후에는 떳떳한 법이라”(이종일, 「연원의 관계」 『天道教會月報』 제2권 4호 (1911년 9월), 54쪽). 淵源이란 동학이 비밀리에 포교되던 최시형 시절 조직을 보전하고 포교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방교구가 마련되고 안정적으로 포교활동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연원은 실효성이 없어졌지만 정신교화기구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존속했다. 연원을 중심으로 무리가 형성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읍내에 거주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천도교 포교가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연원록》에는 일부 신자들의 연원관계만 기록되어 있어 언양 천도교인 전체의 연원관계 및 포교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연원록》에 기록이 남아 있는 이들은 대부분 초기 신자들이어서 천도교가 어떤 식으로 언양에서 포교가 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천도교신자가 되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원록》을 바탕으로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연원관계를 정리하면 <그림2-1>과 같다.



출전 : 언양교구, 《연원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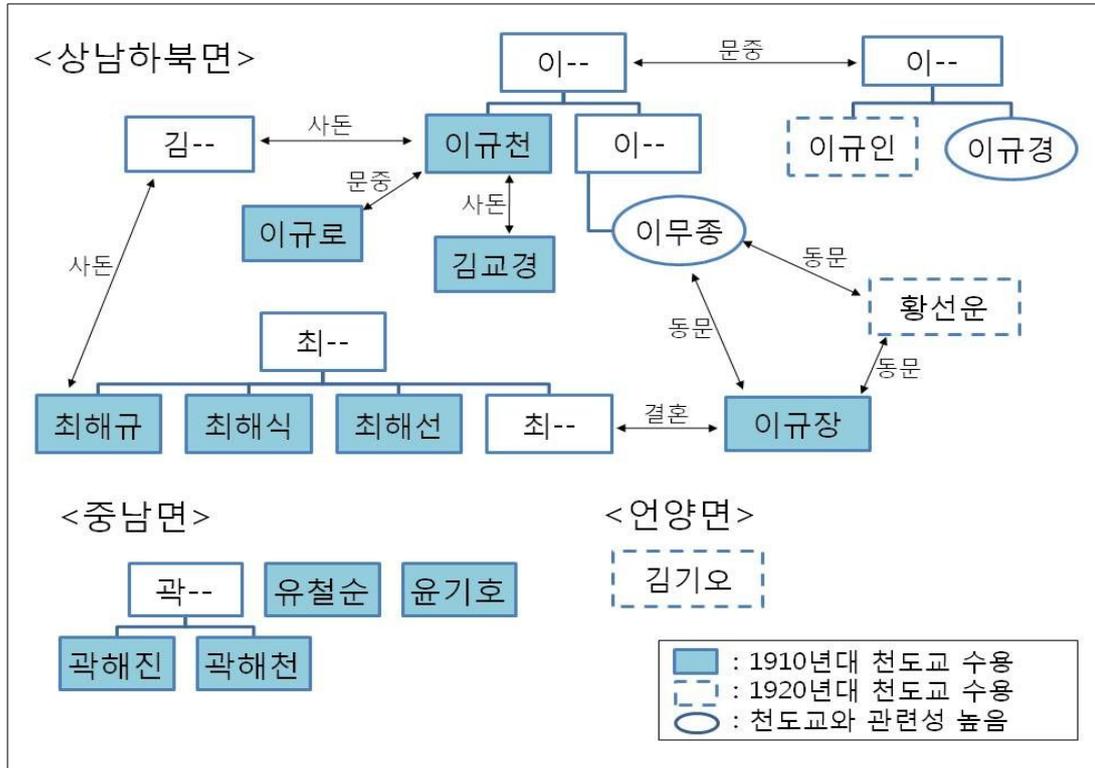
비고 : 가족단위로 포교가 이루어졌으나 지면관계상 戶主만 표시, 주요 신자들의 연원만 정리한 것으로 사회적 관계가 밝혀진 이들은 '■'로 표시함. 이들의 관계는 <그림2-2>에서 정리함.

<그림2-1> 언양 초기 천도교 신자들의 연원 관계

《연원록》에 기록된 언양의 초기 신자들은 최해규·최해식·최해선, 광해진·곽해천, 이규천·이규로·이규장, 유철순, 윤기호 등이다. 임명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언양에 거주하고 있었다. 언양에서 최해규가 처음 천도교 신자가 되었음을 고려하면, 연원상에서 최해규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김교경, 최해식, 이규천, 광해진 등은 언양지역 연원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이 포교활동을 진행하고, 새롭게 신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연원관계에 포함되었다.

최해규와 최해식은 형제지간이었고, 김교경과 이규천은 사돈지간이었다. 광해진, 유철순, 윤기호는 모두 중남면 신화리와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규로와 이규장은 상남면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전도는 대체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친인척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해규는 김교경에게 전도를 했지만 이 둘은 거주지역도 달랐고 직접적인 친인척 관계로 묶여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이규천이 있었다.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과 새로 신자가 되는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이 두 사람을 매개해주는 다른 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천도교 신자들은 사

회적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초기 천도교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2-2>와 같다.



출전 : 언양교구, 《연원록》, 『상북면지』 (2002), 『삼동면지』 (2002)

비고 : '■'로 표시된 이들이 《연원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도교도임. 《연원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편의상 1920년대 천도교도가 되는 이들과 천도교 관련 인물들도 함께 나타냄.

<그림2-2> 언양 초기 천도교 신자들의 관계

<그림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양의 초기 천도교들은 형제지간이나 이웃 사촌, 같은 문중, 혼맥, 학연 등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관계는 상남면, 하북면 출신의 천도교도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중남면과 상남하북면에 거주하는 천도교 신자 사이에도 서로 연원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두 지역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서로 왕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자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규천, 이규로, 이규장 등이 경주 이씨 문중에 속해 있었다. 김교경이 경주 김씨 문중에, 최해규, 최해식, 최해선이 경주 최씨 문중에, 곽해진, 곽해천이 현풍 곽씨 문중에, 윤기호가 파평 윤씨, 유철순이 기계 유씨 집안이다. 이 중 경주 이씨와 경주 김씨 두 가문은 언양의 전통적인 유력 문중에 속하고²²⁾ 나머지 가문들은 지역 내 유력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

22) 조선 후기 이래로 언양에는 유력한 소수의 가문이 없이 8개의 가문이 언양의 공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鳴村의 경주 김씨, 못안의 동래 정씨, 이불의 경주 이씨, 荷峯의 영산 신씨는 임란 이전에 언양에 정착해

들 중에서 한학을 공부한 이는 더러 있었지만 이규장을 제외하면 신식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김교경은 서당 훈장을 하고 있었고 이규천은 근대적 토지측량술을 배워 농사를 지으면서 토지측량 기사 일을 함께 했다.²³⁾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었고 윤기호는 양조장을 운영했다.

이들이 천도교 신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해규, 이규천, 김교경, 곽해진 등은 천도교를 수용하기 이전부터 혈연, 혼맥, 학맥, 지연 등을 통해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친분을 통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공유했다.²⁴⁾ 또 1908년 언양에서는 의병과 일본병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²⁵⁾ 이러한 일들을 목격하며 식민지의 위기의식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중에 최해규가 천도교 신자가 되자, 그와 친분 관계에 있었던 다른 이들도 영향을 받으며 천도교에 입교했다. 천도교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통합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었고,²⁶⁾ 식민지의 현실에서 근대화를 해야 한다는 이들의 문제의식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었다.

언양교구 내에서 맡은 역할을 보면 최해규, 김교경, 곽해진은 언양교구(1914년 울산교구로 통합됨)의 교구장을 역임했다. 1919년 3.1운동 이전에는 최해규와 김교경이 돌아가면서 교구장이 되었다가 1920년에 들어서는 곽해진과 이규천이 교구를 이끌었다.²⁷⁾ 1915년 곽해진, 이규천, 최해규 세 사람은 신자들에게 천도교 교리를 가르치고 교육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는 講道員에 임명되기도 했고²⁸⁾ 김교경은 1917년에 중앙총부로부터 연원이 30호가 되었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있었고, 陵入과 香山의 진주 강씨, 吉川의 밀양 박씨, 泉所의 연안 송씨, 반곡의 안동 권씨 4가문은 입란 이후에 언양에 정착했다. 당색에 따라서 남인을 표방하고 있었던 경주 김씨, 동래 정씨, 경주 이씨, 밀양 박씨, 진주 강씨, 연안 송씨를 언양의 육대 성씨로 통칭하고, 노론을 표방하고 있었던 안동 권씨와 영산 신씨를 합하여 북권 남신으로 통칭한다(남연숙, 「朝鮮後期 鄉班의 居住地 移動과 社會 地位의 持續性(1)」 『한국사연구』 83, 1993, 52쪽).

23) 이철우(이규천의 손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규천과 김교경은 천도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언양향교에 출입했고 그곳의 유림들과도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규천의 경우 고모부가 언양향교의 직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천도교도가 된 이후부터는 향교 출입을 하지 않았다(2010년 11월 14일 이규천 구술 인터뷰).

24) 곽동하(곽해진의 아들)의 구술에 의하면 최해규를 비롯한 언양의 천도교인들은 서로 왕래하고 어울리는 중에 인내천이라는 평등사상에 감화되어 천도교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최해규의 경우 천도교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집안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들을 양팔로 삼거나 며느리로 삼았다고 한다(2003년 1월 22일 곽동하 구술 인터뷰). 윤특조(윤기호의 아들)의 구술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다. 천도교를 믿을 즈음에 칠, 팔명 되는 친구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천도교에 가입하면서 상투를 모두 잘랐다고 한다. 윤기호는 상투를 자르고 난 후 그의 아버지에게 들켜서 혼이 날까봐 1년 동안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귀가하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2003년 2월 24일 윤기호 구술 인터뷰).

25) “부산전보를 거한즉 다수한 의병이 언양 고을을 습격하여 일본병으로 접전하는 중에 의병이 일변으로 재무서[財務署]를 소화하고 관전 사백이십원을 탈취할 즈음에 일본병들이 부상하였다는 보고를 인하여 일본병을 파송하였더라(〈戰信一通〉 《해조신문》 1908년 4월 11일).”

26) 식민지의 분위기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대변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한국인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체를 그 존재가 미미한 상황에서 한국인만을 묶어 내는 통합체가 필요해졌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국어, 역사, 국학 등이 민족의 혼으로 강조되기도 했다. 종교 역시 스스로 민족적 정치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모습을 띄고 있었다(장석만, 「3.1운동에서 종교란 무엇인가」 『1919년 3월 1일에 묻다』, 2010, 209~211쪽).

27) 곽해진의 경우 1920년 성미대금 영수증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언양교구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규천의 경우는 1927년 언양교구 대표로 천도교연합회 총회 참석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이를 통해 1920년대 언양의 천도교는 이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8) 〈公函〉 1915년 1월, 2월

역할을 하는 奉訓職에 임명되기도 했다.²⁹⁾

이와 같이 최해규, 곽해진, 이규천, 김교경 등은 포교활동을 통해 신자를 모으는 동시에 교구장, 강도원과 같은 직위를 맡았다. 이들은 언양 천도교 조직의 기본 뼈대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천도교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최해규를 비롯한 이들은 모두 연원의 상위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원은 그 자체에 ‘스승과 제자’와 같은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합되어 있던 만큼 서로 간에 결속력이 높았기에, 이른 시기에 천도교 신자가 된 이들은 천도교 활동에서 탈락하지 않았다.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1910년대 언양에서 천도교가 점차 확산되었다.

2. 언양 천도교도의 활동과 천도교세의 확산

언양에 천도교가 전래된 것은 1910년 9월이지만 교구실 건축공사는 1913년 2월에 가서야 시작되었다. 교구가 설치되더라도 교구실이나 전교실이 없는 상태에서 교구를 유지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있었다. 그런 경우는 보통 교인들의 개인 집을 돌아가면서 천도교 의례를 행하곤 했다. 언양에 천도교가 전래된 지 3년 만에 교구실을 짓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私宅에서 시일 성화회식이나 기도회 등의 의례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신자의 수가 증가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1913년 2월부터 巨里 교구실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상황은 『天道教會月報』에 실려 있었다.

彥陽教況

경남 언양교구는 작년(1913) 이월부터 시작하여 구월에 준공하니 성화실이 팔간(間)내에 사무실이 이간이요 강습소가 삼간이요 우물이 한간이요 중문이 두간이요 축실이 두간이니 다 함석으로 덮고 그 공역은 160명이 들고 돈이 560원인데 교인들이 각기 밥을 싸가지고 와서 부역한 이가 상에 십일 소불하 오일이요 돈으로 기부한 씨명은 이규로 256원, 김정권, 이규익 20원씩, 김교경, 곽해진 10원씩, 유성건 8원, 이규천, 이종운 6원씩, 한중교 4원, 이규호, 이규석 3원씩, 이종욱, 이원, 유철순, 신종철, 반상기 1원, 박기수, 유영규, 한응교, 김응조, 한영문, 이두희, 이종수, 장진환 75전씩이더라.³⁰⁾

기사에 따르면 성금 모금에는 24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의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상세하게 쓰여 있었다. 언양의 천도교도들은 성금만 모은 것이 아니라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10일까지 共役을 부담했다. 교구는 보통 신자들이 百戶 이상 되는 구역에 설치되었다. 언양의 경우 교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

29) 蔚山政策研究所 獨立運動史 再照明委員會, 『蔚山の 獨立運動史』, 2008, 91쪽

30) 『천도교회월보』 제48호, 1914년(포덕55), 26쪽

있고 160명이 필요한 공역을 천도교인들이 모두 담당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시기 언양 신자들의 수가 百戶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기사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규로가 상남면 거리에 있던 자기 소유의 땅을 교구실 건축을 위한 부지로 제공했고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교구실 건축 비용으로 200원을 부담했다. 교구실 건축에 필요한 액수는 총 560원인데 교인들의 기부금을 더하면 353원으로 200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족 부분을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부담한 것이다.

巨里에 세워진 교구실은 성화실과 사무실, 강습소를 갖추고 있어서 천도교의례 뿐 아니라 교리 강습 및 강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다. 특히 강습소가 지어졌다는 것은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교리강습소를 운영할 수 있는 확실한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도교 중앙총부에서는 교인 자체들에게 ‘교리를 강습’ 하면서 동시에 ‘보통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지역에 교리강습소를 설치했고 천도교리 외에 조선어, 한문, 일본어, 산술 등 보통학교의 교과목도 함께 가르쳤다.³¹⁾ 1914년 교구 및 전교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192개였는데³²⁾ 교리강습소는 1910년대 중반에 전국적으로 800여개가 설치되었다. 이미 교구실과 강습소를 갖추고 있었던 언양교구에도 교리강습소가 설치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언양의 천도교인들에게 교구실 건축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많은 신자들이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공식적으로 의례를 행할 수 있게 되었고 미흡하게나마 교리강습과 근대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천도교 교구실은 포교활동 및 교리 및 근대교육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교세가 확산된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이후 천도교세 확산의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1910년대 언양에 천도교 포교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천도교세가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 천도교인들이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자료가 있다. 하나는 중앙총부에 성미를 납부한 후에 받은 誠米代金 영수증이고 다른 하나는 언양 천도교인들의 의연금 내역을 기록한 《비고장》이다.

성미란 천도교인의 가정에서 매 식사 때 밥을 짓기 전에 식구 수대로 한 숟가락씩 덜어낸 쌀을 모은 것으로³³⁾ 성미 납부는 천도교인의 대표적인 의무 중 하나였다. 각 교구에서 납부하는 성미는 천도교 중앙총부와 지방 교구를 운영하는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천도교인 가정에서는 매월 두 차례 성미를 모아 지방 교구에 납부했고, 지방 교구에서는 성미를 팔아 해당 금액을 중앙총부에 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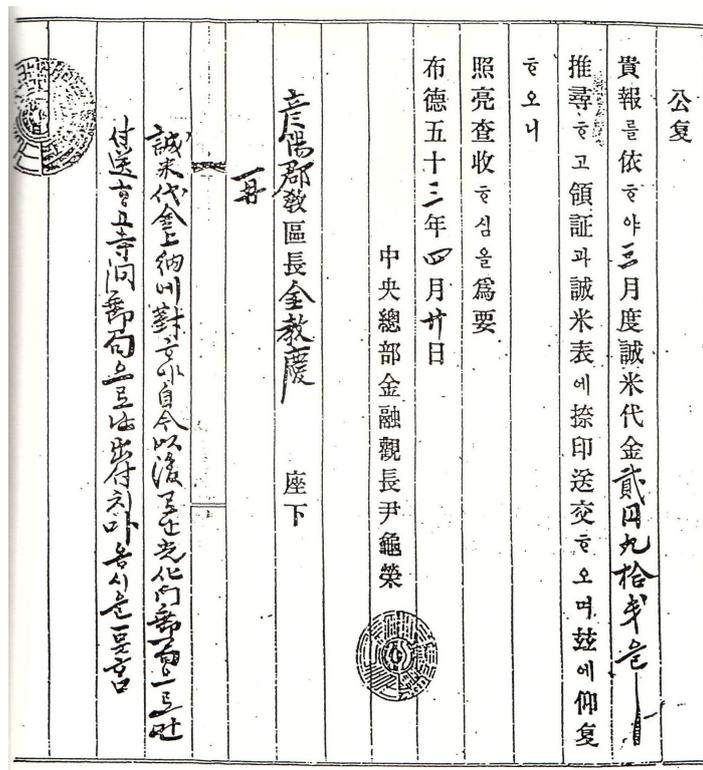
31) 천도교 중앙총부, 「천도교강습소 규정」(1911)

32) 「천도교종령」 제106호 (1914년 7월 1일)

33) 성미제도는 身分金 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천도교에서는 교회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1906년 2월 7일 종령 제4호에 따라 신분금에 대한 규정을 내렸다. 내용은 “부인이나 남자를 물론하고 연령 15세 이상인 사람의 신분금을 주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매 한 사람 식료 중 한 숟가락의 쌀을 매끼 밥 지을 때 덜어낸다. 1.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물론하고 1개월간 3일분의 수수료의 금액을 덜어낸다. 이 두 가지로써 신분금을 상납한다.”이다(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5, 135쪽). 이후 교단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신분금을 성미제로 바꾸고 교회의례로 정착시켰다.

부했다.

언양교구에서는 중앙총부에 성미를 납부하고 公函의 형태로 성미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현재는 1913년부터 1916년까지 4년에 걸쳐 16개의 영수증이 전해지고 있다. 성미대금 영수증은 1913년이 11개로 가장 많고 1914년 1개, 1915년 3개, 1916년 1개가 남아 있다.³⁴⁾ 영수증을 보면 성미대금의 해당 月과 금액이 나와 있고 영수한 날짜, 중앙총부 금융관장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고 끝부분에는 해당 교구와 교구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영수증의 다른 부분은 미리 인쇄가 되어 있고 날짜와 성미금액, 해당교구와 교구장의 이름은 직접 쓰도록 되어 있었다.



<그림3> 성미대금 영수증 사본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미대금 납부 영수증을 통해서 언양 천도교도의 성미 납부 활동과 언양지역 천도교인의 수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성미대금 영수증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34) 1913년을 제외하고는 중간에 비어 있는 月이 많아서 성미의 납부액만을 가지고 정확한 신자의 수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신자 수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표1> 성미대금 영수 내역

영수증날짜	해당월	금액	교구/교구장	비고
1913년 1월 20일	昨12월분	97전	언양군/김교경	전교사
1913년 2월 12일	1월분	1엔51전	언양군/최해규	전교사
1913년 3월 12일	2월분	2엔21전	언양군/김교경	
1913년 4월 20일	3월분	2엔90전	언양군/김교경	
1913년 5월 16일	4월분	2엔95전	언양군/김교경	
1913년 6월 12일	5월분	3엔25전	언양군/김교경	전교사
1913년 7월 16일	6월분	2엔12전5리	언양군/김교경	전교사
1913년 8월 17일	7월분	2엔23전5리	언양군/김교경	전교사
1913년 9월 11일	8월분	2엔49전	언양군/김교경	전교사
1913년 10월 16일	9월분	2엔94전	언양군/김교경	전교사
1913년 11월 7일	10월분	3엔47전	언양군/김교경	전교사
1914년 12월 11일	11월분	3엔63전	울산군/김교경	
1915년 2월 16일	1월분	3엔59전	울산군/최해규	
1915년 4월 20일	3월분	3엔87전	울산군/최해규	
1915년 6월 16일	5월분	4엔81전	울산군/최해규	
1916년 1월 23일	12월분	3엔17전	울산군/김교경	

출전 : 언양교구, 《公函》 - 성미대금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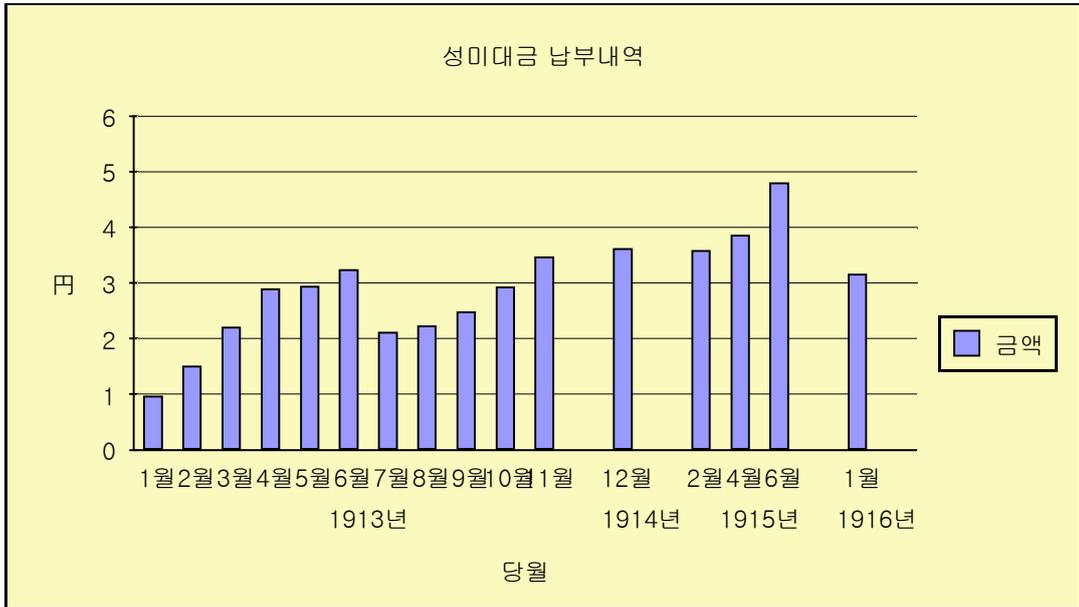
비고 : 성미대금 영수증에서 교구와 교구장의 이름을 기재할 때, 교구장에 두 줄을 긋고 전교사라고 내용을 고친 경우가 있었음. 그 경우에 대해서는 표를 구성할 때 비고란에 '전교사'라고 표시함.

성미대금을 중앙총부에 납부하는 일은 주로 교구장이었던 김교경과 최해규가 맡았다.³⁵⁾ <표1>을 보면 교구명칭의 경우 1913년까지는 언양군으로 기재되다가 1914년부터는 울산군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언양군이 울산군에 통폐합된 행정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교구 명칭은 울산교구였지만 교구장에는 김교경이 유입되었고³⁶⁾ 교회의 위치 역시 巨里에 그대로 있었다.

천도교인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성미를 납부해야 했는데 그 양은 사람 1명당 한 순가락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성미대금의 전체 액수가 증가하면 교인의 수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쌀값이라는 변수가 있다. 성미대금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표1>의 내역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4>과 같고,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같은 시기 쌀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그림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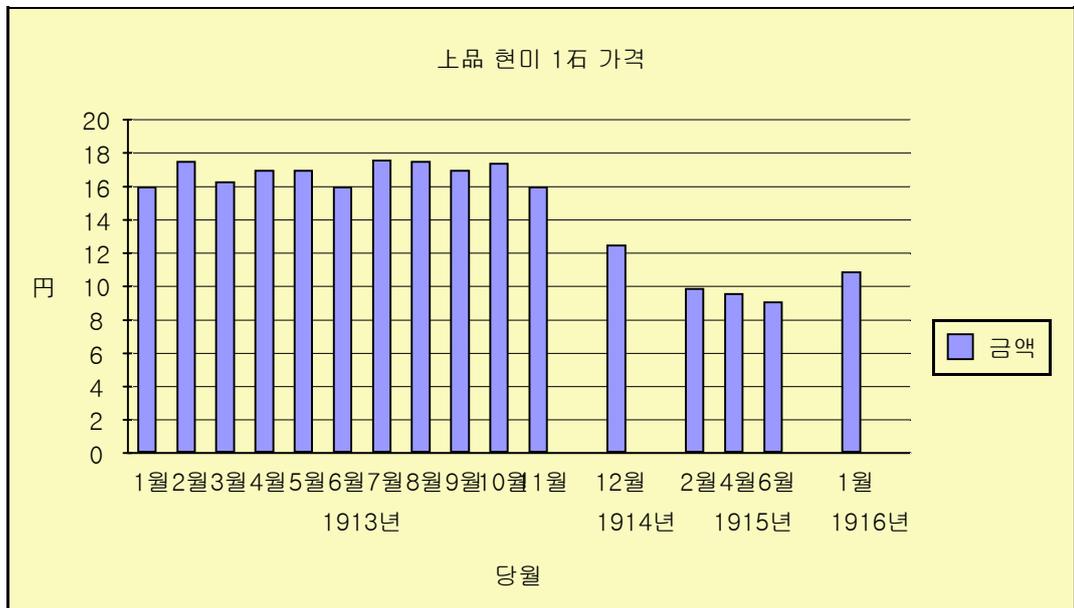
35) 김교경은 1913년 5월에 중앙총부로부터 언양군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천도교회월보>제19호 66쪽). 그런데 1913년 6월부터 11월까지 성미대금 영수증에는 김교경이 교구장이 아닌 전교사로 기록되어 있다. 영수증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36) <천도교회월보> 제36호, 39쪽



출전 : 언양교구, 《公函-성미대금영수증》

<그림4> 성미대금 영수내역



출전 :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3, 1914, 1915, 1916)

비고 : 1914, 1915, 1916년의 경우上品 현미 1石의 전국 평균가격임. 1913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이 없어서 울산과 가까운 지역이었던 경남 마산의上品 현미 1石의 가격임.

<그림5> 일제시기 현미 가격

<그림4>에서 191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성미대금 납부 내역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증가세는 특히 초기에 두드러졌다. 1913년 7월의 경우 전달인 6월과 비교해서 성미대금이 다소 하락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1914년 이후로는 성미대금이 3엔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1915년 6월에는 성미대금이 크게 늘어서 4엔을 훌쩍 넘어섰다. 1916년 1월이 되면 전달에 비해 감소하지만 성미대금 납부의 전체적인 경향은 증가하는 모습이다. 1913년 1월의 성미대금은 97전이었는데, 가장 납부금액이 많았던 1915년 6월의 성미대금 4엔 81전과 비교하면 4.9배로 거의 5배의 차이가 난다. 마지막 영수증인 1916년 1월의 3엔 17전과는 3.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1913년부터 1916년까지 현미 1석의 시장 매매가를 정리한 <그림5>를 보면 현미의 가격은 1913년과 비교해서 1914년, 1915년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성미대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1915년의 경우 성미대금 납부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현미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성미대금이 가장 많았던 1915년 6월의 현미 가격은 이전시기보다 더 낮아졌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미대금의 증가에 언양의 천도교 신자수 증가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수는 1915년에 특히 늘어났고, 이렇게 늘어난 언양지역 천도교 신자들이 납부한 성미는 쌀값의 하락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다.

언양 천도교도의 활동과 신자 수의 증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는 《비고장》이다.(<부록2> 참고) 《비고장》에는 언양교구에서 걷은 의연금의 목적과 모금에 참여한 교인들의 이름과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총 5건의 의연금 내역이 남아있는 《비고장》을 통해서 언양지역 천도교 포교의 한 양상과 시기별 천도교인의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의연금의 내용을 각 항목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언양교구 의연금 납부 내역

시기	1913	1914	1915	1917	1921
목적	교구실 건축	특별 기도미대금	상춘원 매매	삼동면 전교실 買受	교구채무보상
인원	20명+ 중앙총부	15명	50명	22명	35명
금액	549円	160円	62.5円	20.8円	34.9円
관련	지방교구	중앙총부	중앙총부	지방교구	지방교구

출전 : 언양교구, 《비고장》

비고 : 1914년 이후 언양교구는 울산교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언양에 기반을 두고 언양민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했으므로 언양교구로 표시함.

<표2>를 보면 1913년 교구실 건축에 필요한 성금을 기부한 인원이 20명이었는데, 1914년 특별기도미대금은 15명이 성금을 납부해서 이전보다 인원이 줄었

다. 1915년에는 의연금 납부자가 50명으로 증가했고 1917년에는 22명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의연금을 낸 인원수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이것은 의연금 납부가 교인의 의무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인원도, 모금액도 각 건마다 모두 다르다. 성금의 특성상 이번에 기부를 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반드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도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의연금의 목적에 따라서 각 개인의 참여여부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의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뒷 시기로 갈수록 새로운 이름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 언양에서 새롭게 천도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고장》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이름이 많다. 같은 항렬자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제이거나 같은 문중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양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주민 이동이 많지 않고 마을마다 동족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연원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천도교 포교 자체가 혈연, 지연 등의 연결지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1910년대 중반 이후에도 형제, 가족, 문중, 이웃을 중심으로 포교가 이루어져 신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의연금의 항목을 통해 언양 천도교도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5건의 항목 중 언양의 교구활동과 관련된 것이 3건, 중앙총부와 관련된 것이 2건이다. 언양의 교구활동과 관련해서는 교구실 건축, 삼동면 전교실 매수, 교구채무보상이 있고 중앙총부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특별 기도미 대금을 납부한 것과 중앙총부에서 상춘원을 매수할 때 의연금을 납부한 것이 있다.

보통 군 단위에는 교구가 설치되었고 면리 단위에는 전교실이 설치되었다. 언양의 교구실 건축의 경우는 앞에서 그 과정을 확인했으므로 실제 존재했던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³⁷⁾ 그런데 삼동면 전교실의 경우 1917년에 매수를 위해 의연금을 건넸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후에 정확히 어떤 곳을 전교실로 매수했는지 그 위치에 대한 기록이나, 전교실을 관리했던 전교사에 대해서 공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후세 사람들의 진술도 서로 엇갈리고 있어 전교실 매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³⁸⁾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있다.

삼동면은 중남면에 가까워서 삼동면 전교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운영은 중남

37) 1913년 의연금을 낸 인원과 금액에 대해서 『천도교회월보』에는 24명이 353원을 냈다고 되어 있다. 《비고장》에서는 20명이 349원을 냈다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 《비고장》에 기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이름이 누락된 듯 하다.

38) 삼동면 전교실이 실제로 매매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공적인 문서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 구술에서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이철우(이규천의 손자)의 경우 삼동면 전교실은 1917년 당시 실제로 매매되지 않았고 그 금액은 중앙총부로 들어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3.1운동 이전까지 삼동면에서는 광해진, 유철순, 윤기호 등 주요한 인물인 세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보고 일요일에는 거리의 교회에서 함께 시일예배를 봤다는 것이다(2010년 11월 14일 이철우 구술 인터뷰). 그러나 광병희(광해진의 손자)의 경우 삼동면 전교실에 대한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했다(蔚山政策研究所 獨立運動史 再照明委員會, 『蔚山の獨立運動史』, 2008, 96쪽).

면의 초기 천도교도인 곽해진, 곽해천, 유철순, 윤기호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삼동면 전교실 매수를 위한 의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삼동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천도교도인 신임룡이나 변상우, 서익조 역시 1914년의 상춘원 매수에 대한 의연금은 납부했지만 전교실 매수를 위한 의연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삼동면 전교실 매수를 위해 모금된 금액은 20엔이었는데 1917년 당시 울산의 현미 一石 가격이 19엔 60전인 것을 보면³⁹⁾ 실제 건물의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걸어진 의연금은 언양 천도교인의 진술대로 중앙총부에 납부되어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⁴⁰⁾ 언양교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추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1921년 교구채무보상의 경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이 때 성금을 낸 사람들 중에는 이전 시기에 성금납부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 추가돼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3.1운동 이후에도 새로운 신자가 입교하고 있었다는 것과 1920년대에도 교구활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총부와 관련되는 의연금 내역은 특별 기도미 대금, 상춘원 매수 회사금에 대한 것이다. 특별성미란 천도교 교인으로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성미대금 외에 1주일에 1회 기도를 할 때 거두는 것으로, 특별히 精米한 것을 바치므로 특별성미란 이름을 붙였다. 특별성미는 6개월마다 돈으로 계산하여 중앙총부에 납부했다.⁴¹⁾ 언양교구에서는 15명이 성금을 내서 160엔이 모였다. 언양교구에서 실시한 5건의 모금 내역 중에서 의연금을 낸 인원은 가장 적지만 의연금 총액은 두 번째로 많았다. 그만큼 개인이 부담한 액수가 컸다. 이 때 성금을 낸 사람은 최해규, 김교경, 이규천, 이규로, 곽해진, 곽해천, 윤기호 등으로 연원의 상위에 존재하는 이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특별기도미 뿐 아니라 나머지 4건의 의연금 납부에도 참여하는 빈도수가 높아서 천도교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5년 중앙총부에서 상춘원을 매수할 때 전국의 신자들이 성금을 모금했다. 상춘원은 본래 박영효의 별장이었는데 손병희가 1915년 7월에 매입한 후 정원과 건물을 새로 꾸며 천도교의 연회장소로 활용했다.⁴²⁾ 언양에서는 50명이 의연금을 납부했는데 5개의 항목 중에서 참여한 인원수가 가장 많았다. 이 건이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참여 수가 많은 것은, 앞서 성미대금 납부내역에서 확인했듯이 1915년에 언양의 천도교 신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히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의연금 납부 건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참여

39) 울산군, 『울산안내』, 울산군, 1917, 43쪽

40) 언양의 천도교인이었던 이종룡과 이갑중(이무종의 동생)은 삼동면 매매 의연금 뿐 아니라 다른 명목의 의연금들이 천도교 중앙총부에 전달되었는데 독립운동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현희, 『울산교구탐방기』 『동학혁명과 민중』, 대광서점, 1986, 311쪽

41) 이동근,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한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51쪽

42)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5, 162~163쪽

한 것으로 보아 중앙교단에 대한 지방 교구 신자들의 높은 충성도를 짐작할 수 있다. 천도교도들은 상하관계의 연원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위에는 중앙총부의 간부들이 있었고 꼭대기에는 손병희가 있었던 것이다.

언양 천도교인들은 『天道教會月報』(이하 『월보』)를 함께 읽기도 했다. 『월보』는 1910년 8월 15일 창간된 천도교의 기관지로 천도교 교리 및 의례, 근대적 사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언양지역의 천도교인들이 『월보』를 꼼꼼하게 읽고 있었다는 사실은 월보에 실린 언양 관련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월보』 제31호의 <특별고백>이란 부분에서 “지방 교우 중에 특이한 효행이 있거나 기이한 영덕이 있거나 재물을 내어 교중에나 교인 간에 구제한 일이 있으면 교중임원 삼인의 연서를 얻어 본과로 통지하시면 월보에 게재하겠사오며…”라고 하면서 지방 교구의 소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⁴³⁾ 그리고 바로 다음 호인 『월보』 제32호에 언양교구에서 보낸 소식이 실린다.⁴⁴⁾ 언양의 한 천도교인이 치성으로 글을 깨우쳤다는 내용의 기사는 내용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눈여겨 볼만한 것은 언양 천도교 측의 빠른 반응이다. 교중 임원의 연서를 받아 서울로 보내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런 빠른 반응은 언양의 천도교인들이 천도교회 월보를 열심히 읽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라 할 것이다.

『월보』에는 천도교 교리에 관한 내용, 천도교의 가정의례에 관한 내용, 근대적인 학문에 관한 내용, 다른 지역의 천도교구와 천도교인에 대한 소식이 실려 있었다. 전국적으로 천도교의 교세가 확장되자 일반 천도교인에 대한 계몽을 강화하기 위해 언문부를 신설했고 지방교구의 소식을 전하는 기사도 점차 고정적으로 실리게 되었다. 천도교 중앙총부는 『월보』를 통해 지방의 교인들에게 종교적, 근대적 계몽을 강화했고, 언양의 천도교인들 역시 『월보』를 통해 중앙총부 및 다른 지역의 천도교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근대지식도 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1910년 언양에 천도교가 전래된 이후 천도교도의 수는 점차 증가했고 이들은 성미, 시일성화와 같은 천도교인의 의무를 행하고 의연금 납입, 강연과 강습 등의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월보』의 기사, 성미대금 영수증, 의연금 납입 내역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도교인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른 시기부터 언양에서 포교와 교리강습을 담당하고 사람들의 종교적 활동을 옆에서 돕고 지원한 초기 천도교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대체로 이른 시기에 신자가 되면서 지방의 연원에서 상위에 있었고, 지방교구의 간부로서 언양의 천도교 관련 활동에 앞장섰던 사람들로 최혜규, 김교경, 곽혜진, 이규천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또 이들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유철순, 윤기호도 포교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경험을 축적해나갔다.

43) 「특별고백」 『天道教會月報』 제31호, 1914년 2월, 24쪽

44) 「至誠感神」 『天道教會月報』 제32호, 1914년 3월, 22쪽

3. 언양 3.1운동과 천도교

(1) 3.1운동의 전개과정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항거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서울 등지에서 시작된 시위는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경남지방에서는 3월 3일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시작되었고 3월 13일에는 동래, 창녕, 밀양, 3월 14일에는 의령, 17일에는 함안, 18일에는 합천, 진주, 통영, 하동, 23일에는 창원, 27일에는 양산, 30일에는 김해로 시위가 번져갔다. 울산에서는 4월 2일 언양을 시작으로 병영과 남창에서도 잇달아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⁴⁵⁾

서울에서는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등 주로 종교계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이끌었고 특히 천도교 인사들이 운동의 기획 및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에 따라 지역에서 천도교도들이 중심이 되는 만세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는데 특히 서북지역에서 그 빈도수가 높았다.

경상도 지역의 천도교 교세에 대해 일본 측은 “당 관내에 있어서 동교(同敎;천도교)는 어느 한 지방에 있는 소부분으로서 사회 계급상으로 보아도 동 교도는 하층민이 많아 교세가 미미하고 활발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더욱이 일찍부터 천도교인에 대한 시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에서 천도교 세력이 3.1운동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⁴⁶⁾ 그러나 일본 측의 이런 예상과 달리 경상남도의 창녕, 고성 등지에서 천도교인들이 지역의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4월 2일 언양에서도 천도교인들이 주도하는 만세시위가 일어났다.⁴⁷⁾

언양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던 당시 천도교 울산교구의 교구장은 김교경이었다. 김교경은 고종의 인산일에 맞춰 서울에 가 있다가 3.1운동을 목격하고 울산교구에 독립신문과 국민회보의 기사를 필사하여 보내면서 거사 준비를 당부했다.⁴⁸⁾ 이 소식을 들은 언양의 천도교인들은 이규장을 서울로 보내 김교경의 지시를 받아오도록 했다. 이규장이 서울에서 돌아오자 4월 2일 언양 읍내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이 때 중심이 된 천도교인들은 최해규, 광해진, 이규천, 이규로, 이규장, 유철순 등이었고 유럽 쪽에서는 이규인 등이 가세했다. 이무중, 이규장과 휘문의숙의 동문이었던 두동면의 황선운도 참여했다.⁴⁹⁾ 당

45) 정연태, 「경남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358~361쪽

46) 국사편찬위원회, 「소요와 종교와의 관계」 『독립운동사자료집』 6, 1973, 610~611쪽

47) 4월 2일은 언양 읍내의 장날이었다. 당시 언양장은 우시장까지 갖추고 있어서 울산군 내에서 울산장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한일합방 이후 전국의 5일장은 양력으로 시행했고 언양장은 2일과 7일에 열렸다.

48) 김교경은 천도교에서 발간한 국민회보 기사 중 일부를 필사해서 언양으로 보냈다. 현재 전해지는 필사본은 3월 2일, 3월 3일, 그리고 날짜가 쓰여 있지 않은 것, 총 3가지이다. 이 중 3월 2일의 기사는 <告 國民大會 손병희>라는 제목의 격고문으로, 김교경이 필사해서 언양으로 보낸 문서에는 <國民會報>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국민회보>의 내용을 보면 고종의 독살 사건과 그 원인에 대해 서술하면서, 국내의 이천만 동포가 모두 독립을 위해 쫓겨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김교경 필사, <國民會報>).

시 언양의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언양의 3.1운동 주도자

이름	출생 연도	나이	본관	주소	천도교 신자여부	언양 만세시위 당시 역할	비고
이규장	1892	28	경주	상남면 거리	●	조직책, 교구회의(거사결의)	휘문의숙
김교경	1871	49	경주	하북면 산전리	●	만세 시위 지시	
최해규	1882	38	경주	상북면 송대리	●	예비검속, 교구회의(거사결의)	
이규인	1890	30	경주	상남면 길천리	◐	태극기 제작	
이규로	1878	42	경주	상남면 거리	●	교구회의(거사결의)	
이규천	1876	44	경주	상남면 길천리	●	교구회의(거사결의)	
곽해진	1888	32	현풍	중남면 신화리	●	예비검속, 교구회의(거사결의)	
유철순	1885	35	기계	중남면 교동리	●	예비검속, 교구회의(거사결의)	
황선운	1896	24	평해	두동면 월평리	◐	선언문 등사, 태극기 제작	휘문의숙
이무중	1893	27	경주	상남면 길천리	◑	선언문 등사, 태극기 제작, 교구회의(거사결의)	휘문의숙
최해선	1898	22	경주	상남면 길천리	●	태극기 운반, 운동 지휘	
최해식	1884	36	경주	중남면 신화리	●	예비검속	
이규경	1902	18	경주	상남면 길천리	◑	태극기 운반	
이성영	1879	41	경주	상남면 길천리	×	태극기 운반	
강경찬	1900	20	진주	상남면 길천리	×	태극기 운반	
김성진	1857	62	김해	중남면 교동리	×	만세 첫 주창자	

출전 : 언양교구, 《비고장》, 《연원록》, 《公函》; 장미정, 『울산지역의 3.1운동』,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김석보, 『울산유사』, 소문출판사, 1979; 이춘걸, 『(정사)3.1운동』, 처용, 1998; 『상북면지』(2002), 『삼동면지』(2002)

비고 : 언양 3.1운동 주도자는 단순 시위 가담자가 아니라 시위 전개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로 선정하였음. 천도교와의 연관성은 기호로 정리하였음. ●는 1919년 당시 천도교 신자, ◐는 1919년 이후 천도교 신자가 된 경우, ◑공적인 문서에 언급이 없으나 천도교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 ×는 천도교와의 관련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언양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한 16명 중에서 9명이 시위 당시 천도교인이었고 4명 정도가 천도교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천도교와 관련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 중 천도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을 보면, 이규인의 경우 《비고장》의 의연금 내역 중 1921년에 성금을 낸 기록이 있고 황선운은 1921년 公函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3.1운동 이전에 이규인과 황선운이 천도교 관련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를 통해 이규인과 황선운은 1919년 당시에는 천도교도가 아니었지만 1921년에는 천도교도가 되었음

49) 장미정, 『울산지역의 3.1운동』,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23~24쪽

을 알 수 있다. 이규천의 조카였던 이무종의 경우 정식 천도교 신자는 아니었지만⁵⁰⁾ 거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언양 천도교 측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천도교 중앙총부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천도교 중앙총부에서는 1919년 1월에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를 준비하면서⁵¹⁾ 지역의 천도교인들에게도 일정한 참여를 유도했다. 대표적인 예가 1918년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종령을 내려 1919년 1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49일 동안 특별 기도를 지낼 것을 지시한 것이다.⁵²⁾ 이것은 예년에 없던 특별한 행사로 천도교 중앙교단에서는 모종의 운동을 모색하면서 종교적 행사를 통해 지방의 천도교인들을 결속시키려 한 것이다. 이런 종교적 활동을 통해 지방의 천도교인들은 3.1운동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낌새는 눈치 챌 수 있었다. 더군다나 언양의 경우 김교경이 자주 서울을 오가며 중앙교단에 출입을 하고 있었기에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3.1운동이 발발하고 지방으로 확산될 때 서울에서 운동을 목격한 이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언양도 이와 유사했는데 서울에 있던 김교경이 3.1운동을 목격하고 이런 소식을 지역의 천도교인들에게 전하며 의거를 일으킬 것을 지시한 것이다. 언양지역의 천도교는 아주 큰 조직은 아니었지만 중앙총부를 출입하던 김교경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를 통해 3.1운동의 목격담을 전해 듣고 지시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천도교인들이 연원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일을 도모하기가 용이했고 이들은 초기 신자로서 포교 및 여러 활동의 경험도 있었다.

1919년 거사 이틀 전인 3월 31일 천도교인 최해규, 최해식, 곽해진, 유철순 등은 일제의 예비 검속으로 체포되었다. 나머지 주동자인 이무종, 최해선(최운봉), 이규인은 4월 1일 이규인의 빈 집에 모여 밤새도록 태극기 42매를 제작하고 거사계획을 강행하기로 했다. 4월 2일 언양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규

50) 이무종과 이규인에 대해서는 유림측이라는 기록도 있고 천도교인이라는 기록도 있다. 이현희가 언양 천도교인이자 3.1운동에 참여했던 이종룡을 인터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술한 『동학혁명과 민중』(1986)에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유림 쪽 대표로 나온다. 김석보의 『울산유사』(1979)와 『울산울주향토사』(1978)에는 이무종이 천도교인으로 나오며, 『상북면지』(2002)에서는 이무종과 이규인 두 사람이 모두 천도교인으로 나온다. 이규인의 경우 1921년 비고장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아 1919년 언양 의거 때까지만 해도 천도교인이 아니었는데 이후에 천도교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이규천의 손자, 이무종의 조카)의 구술에 따르면 이무종은 천도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으나 정식으로 천도교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3.1운동으로 이무종이 刑을 살게 되었을 때 이무종의 어머니와 고모가 이규천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무종이 3.1운동 당시 중심인물로 활동한 것에는 이규천을 비롯한 천도교도들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3.1운동 이후 이무종은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규천은 장손을 보호하기 위해 이무종이 정식 신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2010년 11월 14일 이철우 구술 인터뷰).

51) 천도교 중앙총부는 1919년 1월 말경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배포함으로써 시위운동을 일으키는 계획을 세우고 기독교계 인사들, 학생들 등 다양한 세력과 제휴하면서 2월 20일 경에는 민족대표를 선정하고 독립선언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선인, 2006, 19~23쪽).

52) 「천도교종령」 129호(1918년 12월 6일)

인, 이성영, 강경찬 등이 태극기를 나눠주었고 중남면 교동리의 김성진(당시 62세)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언양지역 3.1운동에 대해 일제는 “4월 2일 언양면 읍내에서 약 7백의 군중이 투석·기타 광포 행위를 감행하였으므로 발포하여 진정하였다. 이것이 이 군에 있어서의 소요의 시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⁵³⁾ 시위가 시작되자 출동한 일본경찰은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언양 주재소로 강제 연행했고 시위대는 주재소로 가서 투석전을 벌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일본 경찰의 발포에 의해 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때 광해진의 모친도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일제의 발포로 시위대는 해산되었고, 그 후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 작업으로 총 26명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⁵⁴⁾

재판 후 형을 받은 26명 중에 천도교인은 최해선 정도이고, 이무종과 이규경

53)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소요사건상황」 『독립운동사자료집』 6, 1973, 559쪽 ;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인원 에 대해 『(正史)3.1운동』에서는 2000명이라고 한다. 『독립운동사』 3권 (1971)에서는 군중 1000여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54) 언양 3.1운동 관련 형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상북면사무소에 세워진 삼일운동 유공비에는 김원룡도 징역8개월에 처해졌다고 하나 문헌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제외했다. 천도교와 관련된 주 동자들은 사전에 몸을 피해 대부분 체포를 당하지 않았다.

<언양 만세 시위 형고자 명단>

이름	나이	수형상황	주소	판결연월일	판결기관
이무종	27	징역1년6월	상남면 길천리	1919.5.6	대구고등법원
최해선	22	징역1년6월	상남면 길천리	1919.5.6	대구고등법원
이성영	41	징역1년	상남면 길천리	1919.6.28	대구고등법원
이규경	18	징역1년(공소면제)	상남면 길천리	1919.5.6	대구고등법원
김성진	62	징역6월 집유1년	상남면 길천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이민연	61	징역3월 집유1년	언양면 서부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김락수	36	징역6월(옥중사망)	상남면 등억리	1919.5.6	대구고등법원
김정원	40	징역6월	상남면 명촌리	1919.5.6	대구고등법원
서태식	30	징역6월	상남면 명촌리	1919.5.6	대구고등법원
강기형	44	징역6월	상남면 길천리	1919.5.6	대구고등법원
최한홍	22	징역6월	언양면 서부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김한준	36	징역6월	상남면 거리	1919.5.6	대구고등법원
신동목	23	징역6월	삼동면 금곡리	1919.5.6	대구고등법원
허황	46	징역6월	언양면 송대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강재주	61	징역6월	삼동면 하잠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박채우	38	징역6월	중남면 상천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김종백	29	태형90도	상남면 양동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김경수	28	태형90도	상남면 명촌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정태원	41	태형90도	하북면 지내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김정옥	36	태형90도	상남면 명촌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윤봉수	30	태형90도	언양면 직동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정용득	35	태형90도	상남면 등억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서석룡	21	태형90도	언양면 남부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손수복	44	태형90도	언양면 송대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김운봉	25	태형90도	언양면 남부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강문필	46	태형90도	언양면 남부리	1919.4.10	부산지법울산지청

장미정, 『울산지역의 3.1운동』,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64쪽 ; 이춘걸, 『(正史)3.1운동』, 도서출판 처용, 1998, 41~42쪽 ; 『언양읍지』 (2001), 『상북면지』 (2002), 『삼일독립운동기념비』 (2002)

은 천도교와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나머지 23명의 경우 천도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⁵⁵⁾ 최해선과 이무종 등을 제외한 다른 주동자들은 사전에 몸을 피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⁵⁶⁾

언양의 3.1운동을 천도교에서 주도했다는 것은 당국에서도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3.1운동과 관련하여 총독부에서 남긴 <조선소요사건상황>에서 종교와 소요와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오직 蔚山郡 彦陽에 거주하는 천도교구장 崔海圭는 표면상으로는 민심의 鎮撫를 표방하여, 관헌의 눈을 피함으로써 마치 언동에 진지한 태도를 나타냈으나, 이면에서는 암암리에 선동한 용의가 있다.

아직 확증을 얻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4월 2일 언양 시장에 있어서의 소요 때는 하등 관계가 없는 부상자 수 명을 위해, 그들이 國難에 목숨을 던진 것처럼 말을 퍼뜨리고, 이 희생자에 대해서 面里民의 醞金에 의하여 치료하려고 기도하여 술선 自費를 던져 스스로 의사를 초치하고 施療를 한 사실이 있다.

또 同人의 實弟는 지방 소요의 주모자가 되어 울산군 上南面 지방의 동 교도를 선동하여 소요를 야기시켰다. 그 위에 비밀히 동 面里員에게 불온 사상을 주입하여, 이 때문에 면리원이 총사직하려고 그 직무를 내던진 채 조금도 돌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당시의 상황은 천도교와 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⁵⁷⁾

위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언양의 3.1운동은 최해규와 최해선을 비롯하여 언양의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다.⁵⁸⁾ 일제는 최해규에 대해 혐의를 두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 같다. 다만 시위과정에서 체포된 최해선을 ‘同人(최해규)의 實弟’라고 칭하면서 지방 소요의 주모자로 지목했다.

이날의 시위는 거리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面里의 말단 직원인 면리원들 역시 파업 등의 방법으로 시위에 동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제는 천도교 측에서 불온사상을 주입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식민당국에서는 언양의 만세 시위 및 그에 동조하는 다양한 움직임의 배후에 천도교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일본의 강압적인 진압도 이어졌다. 언양 의거 당시 시위에 참여한 민중들 중 일부가 체포되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나왔다. 이 때 체포된 사람들은 재판에 붙여져 1심 종결자는 부산 형무소에서 2심 종결자는 대구형무소에서, 태형은 울산 지청 내에서 집행되었다.⁵⁹⁾ 또 4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울산군 하상면에서 만

55) 26명 중에서 천도교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경우는 천도교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의거 당일은 언양 장날로 많은 사람들이 장에 모여 있었고 사전에 의거의 계획을 모르고 현장에서 동참을 한 경우도 있었다.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당일 현장에서 만세시위를 부르던 사람들로 대부분 천도교와 무관한 사람들로 보인다.

56) 1919년 거사주동자 이면서 형고를 피한 10명의 사람들은 이규장, 최해규, 강경찬, 김교경, 이규로, 곽해진, 이규인, 이규천, 유철순, 황선운이 있다(이춘길, 『(正史)3.1운동』, 도서출판 처용, 1998, 52쪽).

57) 국사편찬위원회, 「소요와 종교와의 관계」 『독립운동사자료집』 6, 1973, 612쪽

58) 3.1운동이 일어나던 당시 언양의 교구장에 대해 기존의 대부분 자료는 김교경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작성한 3.1운동 당시의 보고서나 1919년 2월에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발송한 公函에는 최해규가 교구장으로 나오고 있다.

세시위가 일어나자 식민당국은 언양에서도 再擧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빌미로 언양 시장을 폐쇄했다. 이것은 언양의거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보복적 조치로서의 성격도 컸다. 시장이 폐쇄되자 시장 상인들이 나서서 불온한 행동을 하는 자를 감시하고 질서를 유지할 것을 당국에 약속함으로써 이 조치는 해제되었다.⁶⁰⁾

(2) 3.1 운동의 영향과 언양 천도교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3.1운동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만세시위에 동참했던 사람들 역시 동일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⁶¹⁾ 그러나 3.1운동은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일제의 통치체제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개되는 한국인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언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1운동 이후 일본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했고 조선인들에게는 제한적이거나 자치의 공간이 허용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어로 쓰여진 신문, 잡지의 발행이 가능해졌고 각 지역에서 청년단체, 노농단체 등이 결성되어 1920년대의 사회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운동을 하나로 묶어 주고 정치적 구심체의 역할을 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런 큰 단위의 변화 외에도 3.1운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의 민중들에게 3.1운동은 ‘민족’을 자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 속하는 조선민중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만세’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촌락공동체, 지역공동체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동일시했다. 민중의 이런 감정이 3.1운동 당시에 일시적으로 고양된 측면이 강하다 하더라도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 한 경험은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1920년대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운동이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⁶²⁾ 이러한 민족적인 자각을 바탕으로 민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제에 저항하면서 식민지 지배구조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었다.

3.1운동 이후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인과 식민당국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것은 일본인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식민 당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합천에서는 산림령을 어기고 산림을 남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일로 식민당국이

59) 이춘걸, 『(正史)울산 3.1운동』, 1998, 처용출판사, 52~53쪽

60) 국사편찬위원회, 「鎭撫를 위해 취한 처치, 특히 좋은 수단으로 인정된 사항 및 미연 방지를 위해 유효했던 수단」 『독립운동사자료집』 6, 1973, 649쪽

61) 조정달/허영란譯, 『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2009, 233~242쪽

62) 허영란,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1919년 3월 1일에 묻는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334~338쪽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⁶³⁾

그러나 민족의 자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자각과는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었다. 실제 3.1운동이 끝나고 난 뒤 만세 시위에 참가하느라 생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1운동의 주도층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⁶⁴⁾ 일부 지역에서는 천도교의 신자수가 감소하기도 했고 천도교인에 대한 일본의 감시도 심해졌다.

3.1운동 이후 경상도 지역의 천도교 교세와 관련해 일본 헌병대의 보고 내용을 보면, 경상도 지역은 천도교세가 미미하여 일반 민중은 도내에 천도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신문 등을 통해 3.1운동과 천도교의 관련을 알게 되고 천도교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다고 한다. 고성군의 천도교 신자들이 교주를 원망하며 탈퇴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 일반 민중들 중에는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한 것에 대해 책망하거나, 천도교도의 검거 기사에 당연하다는 비평을 내리고 천도교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⁶⁵⁾

이런 상황은 언양도 비슷했다. 3.1운동 이후에 재발방지를 이유로 언양 시장이 폐쇄되자 상인들이 스스로 불온한 자를 감시할 것을 당국과 약속했다. 시장 폐쇄 조치는 곧 해제되었지만, 이후 발생하게 된 경제적 손해에 대해 시장 상인들이, 3.1운동 주동자 중 다수를 차지했던 천도교인들에게 불만을 돌렸을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언양 만세 시위 이후 언양 천도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시위 당시 체포되었던 최해선과 이무종이 1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복역을 하고 있었고, 최해규를 비롯한 곽해진, 유철순, 이규천 등 나머지 주도자들은 체포를 피해 일정기간 피신했다. 특히 최해선이나 이무종의 재판과정에서 주동자로 이름이 거론된 이규인은 거의 8년 정도 도피생활을 해야 했다.

최해규는 5월에 다시 한 번 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동생인 최해식과 함께 만주로 피신했다.⁶⁶⁾ 이 때 최해규와 매제지간이었던 이규장도 함께 만주로 떠난 것을 보면 5월 거사는 최해규 형제와 이규장이 중심이 되

63) 국사편찬위원회, 「소요의 在日일본인에 미친 영향 및 內鮮人 상호의 관계 상황」 『독립운동사자료집』 6, 1973, 803~804쪽 ; 국사편찬위원회, 「소요의 교육산업 등에 미친 영향 및 경찰상 이에 대해 취한 조치」 『독립운동사자료집』 6, 1973, 828~830쪽

64) 조정달/허영란譯, 『민중과 유평피아』, 역사비평사, 2009, 248~249쪽

65) 국사편찬위원회, 「기독교-천도교에 대한 민중의 감상 및 천도교도-시천교도-각과 외국 선교사의 태도」 『독립운동사자료집』 6, 1973, 714쪽

66) 최해규는 3.1운동이 끝난 후 5월에 다시 거사를 준비하다가 발각되어 최해식과 함께 만주로 피신했다. 최해규는 26년간 만주의 안동지방 탄산성 오룡배에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귀국을 했다(울산정책연구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蔚山의 獨立運動史』, 2008, 94쪽). 최해선은 3.1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고 출소 후 일제 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되자 가족을 데리고 그의 형을 따라 만주로 떠났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방안을 모색하던 최해선은 36세에 병사했다(<삼일당 최윤봉 묘비문>). 최해규 형제의 국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알기 어렵다. 최해규의 매제였던 이규장은 3.1운동 직후에 최해규와 함께 만주로 떠났다가 귀국한 후에는 언양에 머물면서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최해규는 만주로 떠날 때 가족을 고향에 두고 갔는데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의 운동에 대해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 준비했었음을 알 수 있다. 최해규, 최해식, 이규장의 부재는 언양 천도교 조직의 재정비를 어렵게 했다. 게다가 식민당국에서는 만세 시위를 주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거리에 있던 천도교 교회를 폐쇄했다. 언양 천도교 조직을 지도할 핵심 인물들이 자리를 비우고,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교회가 폐쇄되면서 언양의 천도교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3.1운동은 그 자체가 큰 경험이었다. 3.1운동의 주도자들은 직접 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 배포하거나 민중을 동원하고 시위 대열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운동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욱 견고해져 갔고 그 자체로도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천도교인은 아니지만 언양에서의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신동목과 김락수의 경우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에, 다시 대구에서의 의거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형을 살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은 언양의 만세시위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앞장서서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된 이들이다. 옥고를 치르고도 재차 다음 운동에 참여했던 것을 보면 3.1운동에 참여하고 난 뒤 더욱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최해규가 5월에 다시 만세시위를 준비했던 것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천도교 신자들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1920년대가 되면 조직을 다시 추스르고 언양지역 내에서 여러 활동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Ⅲ. 1920년대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

1. 1920년대 언양 천도교와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

3.1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일제는 문화정치로 통치 방식을 변경하여 조선인들에게 제한적이거나 활동의 공간을 열어두었다. 3.1운동 와중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대중의 에너지는 1920년대 각종 사회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다양한 부문에서 운동이 전개되었다.

천도교 중앙교단의 경우, 3.1운동 이후에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교구와 전교실이 폐쇄되거나 교단의 재산을 압수당하는 등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천도교 중앙총부는 오히려 정치·사회 방면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1910년대 천도교에서 주도했던 실력양성운동을 통해 성장한 청년 지도자들이 활동의 전면에 등장했다.⁶⁷⁾ 천도교의 이런 대응은 1910년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문화통치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1919년 9월 2일 청년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천도교 청년교리 강연부가 결성되었고 강연부는 1920년 4월 25일 천도교청년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천도교청년회가 중점을 둔 것은 언론활동 및 계몽운동이었다. 중앙총부 안에 개혁사를 설립하여 1920년 6월 종합월간지인 『개벽』을 발간했고, 회원강습 및 순회강연회를 실시했으며, 천도교소년회를 창립하여 어린이 운동을 펼쳤다.⁶⁸⁾

울산교구에도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의 설치과정을 주도한 이들은 언양이 아닌 울산 읍내 등지에 거주하고 있던 천도교인들이었다.⁶⁹⁾ 3.1운동 이후 언양에서는 巨里의 천도교 교회가 폐쇄되었고 언양 의거를 주도했던 인물들 중 일부가 체포되었으며, 일부는 체포를 피해 만주 등지로 피신하면서 언양 천도교 활동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겼다. 언양에 계속 남아있었던 천도교도들의 활동 역시 당국의 감시를 받아 위축된 상태였다. 반면에 울산 읍내의 천도교도들의 경우 3.1운동을 직접 겪지 않아서 언양지역의 천도교도들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를 울산 읍내 지역에 설치할 수 있었다.

언양의 천도교도들은 조직이 위축된 상황이었고, 울산 읍내와는 거리도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의 성립과정이나 활동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1910년대에도 울산과 언양의 천도교도인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⁷⁰⁾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의 활동은 울산과

67) 김정인, 『천도교 근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2009, 122~123쪽

68)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5, 193~194쪽

69) 1920년대 초까지 울산 읍내 일부와 하상면의 일부 지역에 대해 천도교 포교가 이루어졌다. 이후 논문 서술 과정에서 '울산'이라는 지명이 천도교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를 말할 경우 전체 울산 지역이 아닌 울산읍내와 하상면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70) 《비교장》에 있는 의연금 납부 인원 중에서 울산 읍내에 거주하는 천도교인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언양에서 구분되어 전개되었다.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21년 4월 20일에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에서는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업경과보고 및 회계보고를 한 후 투표를 통해 회장에 허준해, 幹務員에 차덕출, 장○희, 幹融員에 김동욱, 박지양, 지육부장에 박지양을 선출했다.⁷¹⁾ 이들은 모두 울산 읍내 지역에 거주하는 천도교 청년들이었다.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에서는 중앙총부 천도교청년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천도교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고⁷²⁾ 울산청년회의 후원을 받아⁷³⁾ 동경유학생들로 구성된 巡講團의 강연 자리도 마련했다.⁷⁴⁾ 1921년 9월에 노동야학회를 설립하고⁷⁵⁾ 천도교소년회를 운영하기도 했다.⁷⁶⁾ 또 1924년 12월부터 15세 이하 소녀 30여명을 대상으로 여자야학을 개시하여 운영했다.⁷⁷⁾ 이런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의 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공조활동을 하는 것은 주로 울산청년회였고⁷⁸⁾ 언양의 천도교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거나 천도교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언양과 울산의 천도교인들 사이의 활동이 구분되는 모습은 교당의 설치에서도 나타났다. 1921년에 울산면 우정동의 宋起龍씨가 울산 천도교 교구실로 가옥 1棟과 대지 130평, 현금 백원을 기부하면서 울산에 천도교 교구실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⁷⁹⁾ 울산에 교구실이 세워질 때 언양 거리의 교구실은 폐쇄된 상태였으나 울산 교구실은 언양에 거주하는 천도교인들을 흡수하지는 못했다. 언양의 천도교인들은 폐쇄된 교회에 양정학원이라는 사설강습소를 세워 그 곳을 기반으로 교회의 명맥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울산과 언양 천도교도 활동의 분리는 언양의 천도교도인 김교경이 천도교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1920년대 초 천도교 중앙총부에서는 조직을 좀 더 민주적으로 개혁하려는 세력인 혁신파가 등장했는데 언양의 천도교도였던 김교경이 혁신파에서 활동을 했다. 1921년 10월에 치뤄진 천도교의 의정원 선거

또한 연원록에서 울산에 포교를 한 사람의 경우도 최해식 1명을 제외하고는 언양 천도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1910년대부터 두 지역 사이의 활동에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71) 〈울산천도교청년회 - 제1회정기총회〉 《동아일보》 1921년 5월 7일

72) 天道敎靑年會 울산지부 주최로 개최된 강연회에서는 경성에서 특파된 김의진이 “사람의 엄숙한 의무는 무엇인가”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蔚山天道敎靑年會 주최강연회〉 《동아일보》 1921년 6월 3일).

73) 〈東京留學生 天道敎靑年會巡講團, 蔚山靑年會 후원으로 강연회〉 《동아일보》 1921년 7월 5일

74) 조선의 민중들에게 천도교 교리를 선전하고 문화발전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계획된 순회강연은 동경 유학생들이 3隊로 나뉘어 추진되었는데 울산에는 慶尙隊에 소속되어 있던 정일변, 김의진, 박달성이 강사로 와서 순회강연을 진행했다(「천도교청년회 동경지회 순회강연상황」 『천도교회월보』 제131호 (1921년 7월)).

75) 〈蔚山天道敎靑年會 주최로 勞動夜學會 설립〉 《동아일보》 1921년 9월 12일

76) 초기 울산의 소년운동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21년 당시 울산에는 천도교, 불교, 기독교 쪽에 소년회가 결성되어 있었다(〈蔚山天道敎靑少年會와 佛敎 基督教靑少年會와의 蹴球大會〉 《동아일보》 1921년 9월 18일 ; 〈소년가극단, 蔚山天道敎 소년단〉 《시대일보》 1924년 10월 21일 ; 〈울산 천도교소년임사회〉 《동아일보》 1925년 6월 16일).

77) 〈여자야학 개시, 蔚山 天道敎에서〉 《조선일보》 1924년 12월 21일

78) 천도교청년회 주최 순회강연회에서 답사를 한 사람은 이종천이었다(〈울산천도교청년회주최강연회〉 《동아일보》 1921년 6월 3일). 당시 이종천은 1920년 2월에 설립된 울산청년회의 평의원직을 맡고 있었다.

79) 〈天道敎區室 寄附〉 《동아일보》 1921년 6월 4일

에서 김교경은 전국 60여개의 선거구 중 제1구 울산에서 의정원으로 선출되었다.⁸⁰⁾ 이후 김교경은 천도교 간부인 중법사와 중무사를 선발할 7명의 전형위원 중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고, 혁신파와 구파 간 타협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혁신파 측의 교섭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하면서,⁸¹⁾ 중앙에서 주로 활동했다.

1922년 구파와의 교섭이 결렬되자 혁신파는 천도교 총부에서 이탈하여 천도교 연회를 조직했다. 언양 출신의 김교경 역시 천도교연합회에 소속되었다.⁸²⁾ 1920년대 후반에도 김교경이 천도교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확인된다.⁸³⁾ 1931년의 제9회 정기총회에서는 천도교연합회 울산(언양)지부의 이규천을 대신해서 김교경이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⁸⁴⁾ 울산의 천도교인들이 천도교 중앙교단과 관련되었다면, 언양 천도교인의 경우 서울과 언양을 왕래하며 활동한 김교경의 영향으로 천도교연합회의 한 지부로서 울산과는 별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⁸⁵⁾ 이것은 언양에서 개최된 교인대회의 내용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진다.

1924년 언양 천도교인들은 상남면의 교회에서 김교경의 사회 하에 교인대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연합회 결의사항을 통과시키고, 전년도 결산보고 및 당해년도 예산편성을 완료한 뒤 일반 교인의 투표를 통해 임원을 선발했다. 이 때 선발된 임원은 서무부 간사 이규장, 경리부 간사 이규천, 선전부 간사 김교경과 곽해진 등이었다.⁸⁶⁾ 1924년은 이미 천도교연합회가 중앙교단으로부터 분리된 때였는데, 교인대회에서 연합회의 결의사항을 통과시켰다는 것으로 보아 언양 천도교회는 천도교연합회와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울산의 경우는 천도교 중앙교단의 영향력 하에 계속 놓여 있었다. 1922년 8월에 천도교 교단에서는 교주제를 폐지하고 종리사에 의한 집단 지배체제로 교단을 운영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천도교 중앙총부는 천도교 중앙종리원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에도 종리원이 설치되었다. 1927년 울산군 종리원 종리사로 허준해와 김문성이 임명되었다.⁸⁷⁾ 허준해와 김문성은 천도교청년회 울산지부의 창립 당시부터 조직을 이끌어왔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종리원의

80) 의정원 선거 규정에 따르면 5백호를 기준으로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데 한 교구가 5백호가 넘더라도 한 사람의 의정원을 선출한다. 5백호가 미달된 경우에는 2, 3개 교구가 합쳐져 한 선거구가 된다(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5, 195쪽). 김교경이 제1구 울산에서 선출된 것을 통해 볼 때 울산교구는 신자 수가 적어도 5백호 정도가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81)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집, 1996, 212, 215쪽

82) 1923년 3월 30일 천도교당에서 제1회 연합총회 당시 의장이 김교경이었다.

83) 1929년 김교경은 천도교연합회의 선전부 간부로 각 지방의 敎訓 순회강연을 계획·지도했다(〈天道敎聯合會 敎訓 巡廻計劃에 관한 건〉 《京鍾警高秘 제888호》 1929년 1월 26일). 1930년에 열린 제8회 정기총회에서는 의장을 맡아 총회를 진행하고 同회의에서 교화부 간부로 선출되었다(〈천도교연합회 정기총회 성황〉 《중외일보》 1930년 4월 10일).

84) 〈[天道敎聯合會] 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 《京鍾警高秘 제4318호》 1931년 04월 09일

85) 천도교연합회는 천도교의 다른 계파들보다 사회개혁적인 성향이 강했다. 1920년대 언양 천도교인의 활동양상에서 천도교연합회의 영향력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해방이후 이규천이 울산군 인민위원장이 되고 유철순이 삼남면 농민조합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들이 일정정도 천도교연합회의 사회주의 활동에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86) 〈천도교 회의〉 《조선일보》 1924년 5월 12일

87) 『신인간』 19호 (1927년 12월호), 46쪽

간부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천도교청년당 활동에도 참여했는데 1930년 천도교청년당부 일람에 울산 대표로 김문성이 기재되어 있었다.⁸⁸⁾

천도교 중앙교단에서 천도교연합회가 독립하기 이전에 언양과 울산의 천도교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같은 교구, 같은 조직에 속해있었다. 그러나 천도교연합회가 중앙교단으로부터 분리되고, 김교경이 천도교 연합회쪽 활동에 참여할 때 언양의 천도교인들과는 그 활동에 대해 공유했지만 울산의 천도교인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 울산의 천도교인들은 천도교 중앙총부의 영향 하에, 언양의 천도교인들은 천도교연합회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고 서로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조직계통의 차이는 구체적인 활동내용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울산과 언양이 과거에는 전혀 별개의 지역이었다는데 있다. 식민지 당국에 의해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지만 이런 행정구조의 재편과는 별도로 식민지 이전부터 각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사회적·인적 네트워크가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다.⁸⁹⁾

언양교구가 소속되게 된 천도교연합회는 기존의 천도교 중앙교단과 비교하면 그 자체의 세력이 대단히 약한 편이었다. 활동의 기반 역시 만주나 서북지역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언양과 같은 경상도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직화에 덜 치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예로 천도교연합회에서 결성한 천도교유신청년회의 지부가 언양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1920년대 언양에서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천도교인은 상남·하북면의 이규천, 이규장, 김교경, 이무중, 이규경, 중남면의 광해진, 유철순, 유치두, 언양면의 김기오, 두동면의 황선운 등이다. 정식 신자가 아니었던 이무중, 이규경과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교경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1921년 천도교 중앙총부에 의해 언양에서 포덕을 담당할 傳導員으로 임명되었다.⁹⁰⁾ 최해규는 3.1운동 직후 만주로 망명을 하기 때문에 <공함>에도 언급되지 않고, 1920년대 언양에서의 활동은 알려진 것이 없다.

이들 중 김교경, 광해진, 이규천, 유철순, 이규장, 황선운, 이무중, 이규경 등은 3.1운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이들이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1910년대 지역에서 천도교 관련 활동을 통해 그 역량을 쌓거나 주변의 천도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기오의 경우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천도교로 개종을 했다.⁹¹⁾ 황선운의 경우도 3.1운동 당시에는 천도교

88) <天道教青年黨 一覽에 관한 건> 《京鍾警高秘》 제8463호 (1930년 6월 5일)

89) 허영란의 안성지역 3.1운동 연구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안성군에 속해있던 구 안성군, 구 양성군, 구 죽산군에서 발생한 3.1운동은 각 지역에서 가동되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허영란,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1919년 3월 1일에 묻는다』, 성균관대출판부, 2010). 울산과 언양에서의 사회운동이 구분되는 양상은 비단 천도교의 활동 뿐 아니라 다른 부분 운동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사안에 따라서 혹은 필요에 의해서 울산과 언양의 제반 단체들 간 협력 및 협조 관계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활동의 주무대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90) 전도원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천도교를 전파할 뿐 아니라 기존의 천도교 신자들에 대한 교육도 담당했다. 1921년 4월의 <공함>에는 전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과 담당하는 구역, 인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신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정식으로 신자가 되었다. 이무종과 이규경은 정식신자는 아니지만 천도교와 관련을 맺고 1920년대 사회운동을 전개했다.⁹²⁾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언양 천도교인들은 천도교청년회나 천도교유신청년회와 같은 천도교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중앙교단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지도 않았고 천도교연합회의 영향력도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언양 천도교인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사회운동은 1920년대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양상과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천도교 관련 운동단체는 결성되지 않았지만 언양 천도교인들인 종교적 활동은 계속하고 있었다. 1924년 교인대회가 개최되었고, 천도교연합회에서 총회를 개최할 때면 울산지부 대표가 참석을 하고 있었다.⁹³⁾ 1929년 천도교연합회의 제8회 정기대회에서는 ‘울산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기도 하는 등,⁹⁴⁾ 1931년까지 울산지부에서 천도교연합회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확인된다.⁹⁵⁾ 이를 통해서 1930년대 초반까지 언양에서는 천도교연합회 울산지부가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부의 유지는 언양 천도교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조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천도교 운동단체는 결성되지 않았지만 언양 천도교인들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가지고 있었다.

1920년대에는 여러 대중운동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⁹⁶⁾ 특히 아직 미약하던

<포교의 담당구역과 해당 전도원>

기간	담당구역	인원
대정10년 (1921) 5월부터 6월까지	上南面~下北面	李圭千, 李圭章, 李圭華, 李鐘○, 金時坤, 鄭錫龍, 韓榮碩
	中南面~彦陽面	俞致斗, 辛泰洙, 郭海鎮, 金琪午, 吳○○, 郭海千, 尹琪昊, 俞哲淳
	三同面,附盤松,盤泉	卞相佑, 辛任龍, 徐益祚, 沈瑀植, 金○潞, 辛銀浩, 朴章夏, 宣成奎
	斗東面~斗西面	黃善運, 崔○○, 車柄基
	蔚山面~下廂面	白南撤, 許俊海, 朴芝陽, 金東旭

출전 : <公函> 1921년 4월

비고 : 해독이 불가능한 한자는 ○로 표시하였음.

91) 『천도교회 월보』에는 김기오가 쓴 글이 실려 있다. 130호(1921년 6월)에는 「東京에 있는 天道敎青年會員諸氏에게」, 134호(1921년 10월)에는 「우리는 무엇으로서 主張할가」란 글이 실려 있다. 이 중 130호에 있는 글의 본문에 “나는 淺薄한 자질이라 天師의 感化를 받은 지 발서 해슈로는 두해이지마는 달슈로는 열달이 未滿이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김기오는 1920년 9월 즈음에 천도교 신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92) 이규경의 경우 『상북면지』(2001)에는 천도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정식으로 신자가 되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의 형 이규인이 3.1운동 이후에 정식으로 천도교 신자가 되었고 이규경 역시 천도교도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서는 정식으로 천도교도가 되었거나 혹은 이무종의 경우처럼 정식 신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천도교와 관계하며 활동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93) 행정구역상 언양이 울산에 속했기에 명칭은 울산지부이지만, 활동지역은 언양이고, 활동인사들 역시 언양 천도교인들이었다. 실질적으로는 언양지부나 마찬가지였다.

94) <천도교연합회 제8회 정기대회 개최의 건 > 《京鍾警高秘 제4414호》 1929년 4월 8일

95) <[天道敎聯合會] 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 《京鍾警高秘 제4318호》 1931년 04월 09일

96) 1920년대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김승,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을

다른 부문 운동과 달리 청년운동은 전체 대중운동을 주도했다. 각지에서 결성된 청년단체의 활동 기조는 한말의 자강운동과 계몽운동의 흐름을 이어 받은 ‘민족주의적 계몽운동’과 새롭게 도입된 ‘개조운동’이었다. 초기 청년단체를 주도했던 것은 지역의 ‘유지’로 이들의 연령은 주로 ‘장년’층이었고 정작 20대의 청년들은 청년운동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전해지면서 청년운동에도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다. ‘청년’이 주도하는 ‘혁신’ 청년단체들이 등장했고 무산계급, 노동자계급 등 민중을 위한 활동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이것은 다른 부문 운동에도 영향을 주어 각지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회운동은 개량적, 타협적 경향과 비타협적 경향으로 분화되었다. 1927년에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신간회가 결성되어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공조관계를 맺었지만 운동노선의 차이로 1931년 즈음에 결국 신간회는 해소되고 사회운동은 다시 분화되었다.

언양에서도 1920년대의 사회운동과 유사한 흐름으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고 지역의 천도교인들도 여기에 관여했다. 언양 천도교는 중앙교단과의 조직적 연계성이 약했기 때문에 교리강습 활동이나 천도교청년 중심의 활동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운동에 있어서 종교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언양 천도교도들의 사회운동은 1920년대 운동의 일반적인 경향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2.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

(1) 언양 천도교도의 지역사회운동

언양 천도교도들의 사회운동은 계몽운동, 개량운동 노선의 지역사회운동과 혁신적 노선의 청년운동으로 분화되었다. 지역사회운동에는 교육과 관련된 계몽운동이나 언론활동, 개량단체 활동과 지역 내의 사안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내용이 포함되고, 청년운동은 주로 혁신계열의 청년운동을 말한다. 이런 분화의 양상은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계몽운동, 개량운동에 가까웠고 젊을수록 혁신청년운동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경향일 뿐 서로 협조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

기존에 언양지역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들은 전통적 유력자들이었다. 조선 후기 이래 언양의 공론을 주도했던 유력 문중 출신으로 구성된 이들은 향교를 구심점으로 유교적 제례와 혼인관계를 통해 상호 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향촌 사회에서 배타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⁹⁷⁾ 일

참고.

97) 신유박해의 영향으로 울산에서 언양으로 이거한 창녕 성씨 가문은 노론 계통이었지만 언양의 남인 계통의 가문들과 통혼 관계를 맺었다(남연숙, 「朝鮮後期 鄉班의 居住地 移動과 社會 地位의 持續性(1)」 『한국

제시기에는 향교의 직원이나 면장, 면협의회의원, 금융조합장 등 지역 내의 공적인 직책을 맡고 각종 자선활동을 통해 언양 지역민들에게 신임을 얻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920년대에 전통적 유력자들이 주도하고 있던 언양지역 사회에 천도교계 인물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천도교세의 확산과 3.1운동을 주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적 활동에서 지역사회운동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천도교 세력은 전통적 유력자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1920년대 언양 지역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김교경, 이규천, 이규로, 유철순, 곽해진, 유치두 등이다. 김교경, 이규천, 이규로, 유치두가 40대이고 유철순과 곽해진이 30대로, 천도교 신자들 중에서도 청장년층에 속한다. 이들은 지역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교육기관 설립 및 언론활동을 전개하고 수리조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3.1운동 이후 침체되어 있던 언양의 천도교인들은 1920년에 들어서면서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폐쇄된 巨里 교회를 추스르는 일이었다.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대신 신식교육기관인 養正學院을 세웠다. 1918년에도 천도교회관에 사설강습소를 설치하려 했다가 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좌절된 적이 있었는데, 1920년대에 다시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교육기관의 설립은 근대 교육을 통해 민중들을 계몽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 천도교인의 활동 공간을 다시 만들어 교단 조직을 재정비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

양정학원을 세우는 일에는 천도교도였던 이규로, 이규천, 김교경과 지역의 전통적유력자인 金璨熙, 成忠甲, 金滢漢, 金錫漢 등이 참여했다.⁹⁸⁾

김찬희는 언양의 8대 성씨 중 하나인 명촌의 경주 김씨 집안 출신으로 그의 부친 金仿鎰은 嘉善大夫 敦寧府都正과 1900년에 彦陽鄉校 都有司를 지냈고⁹⁹⁾ 김찬희 본인은 中樞院議官과 언양향교 直員을 지냈다. 김찬희는 자신이 소유한 부를 활용해서 지역 내에서 善蹟 활동을 많이 했고 지역민들의 신망도 높았

사연구』83, 1993, 77쪽). 언양의 유력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는 동시에, 중앙의 고위 관직자를 배출한 씨족 내 다른 일족과도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언양에서 그 유력성을 증명 받았다. 또한 가문 자체의 계조직을 통해서 언양의 향반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언양의 향반가에 편입될 수 있었다(남연숙, 「朝鮮後期 鄉班의 居住地 移動과 社會 地位의 持續性(2)」 『한국사연구』84호, 1994, 60쪽). 영산 신씨 문중의 경우 같은 가계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다른 당색을 표방하기도 했다. 일부는 남인 계통에서 활동했고 또 일부는 노론계통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박정숙, 「朝鮮後期 中央政界의 政治活動에 따른 鄉班의 生存戰略과 社會地位 維持-彦陽 靈山 辛氏 家門의 事例」, 동아대 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17~24쪽). 이처럼 언양의 향반사회는 지역 내의 유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색에 구애되지 않고 통혼이나 교유관계를 맺었다. 외부에서 유력가문이 언양으로 들어오면 그 유력성에 따라 향반사회로 편입시키는 등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들 문중 출신 인사들 중 김찬희, 김석한, 김형한, 김교완, 성충갑, 김효동 같은 이들은 일제시기에도 가문의 유력성과 경제력을 활용하여 면장이나 면협의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98) 일제시기 상북면 양동리의 김석한, 등여리의 김찬희, 지내리의 성충갑은 지역 내 유명한 巨富들이었다(홍은정, 『일제시기 면직원의 존재형태와 해방 후 활동 -울주군 상북면 사례-』,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27쪽).

99) 彦陽鄉校誌 編纂委員會, 『彦陽鄉校誌』, 2006

다.¹⁰⁰⁾ 김찬희의 자식들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토지와 가문의 유력성을 배경으로 언양 지역엘리트로 성장했다.

김석한은 안동 김씨 가문으로 조부 때 언양의 양등리로 옮겨 왔는데 언양의 8대 성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조부, 부친, 백부와 숙부가 모두 관직에 진출한 것을 바탕으로 유력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김석한 역시 1920년부터 상남면협의회원을 역임했으며 언양향교에서도 활동을 했다. 김형한은 김석한의 중형으로 상북면협의회원을 역임했다. 성충갑은 한말 천주교 박해를 피해 울산에서 언양으로 이주한 후 언양의 향반가로 편입된 창녕 성씨 집안 출신이다. 역시 상북면협의회원을 역임했다.¹⁰¹⁾

이들 전통적 유력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상남·하북면의 유지들로 유력한 가문 소속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언양향교 직원, 면협의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자선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양정학원 설립 비용을 제공받기 위해 이규천은 김찬희를 9번 정도 찾아갔다.¹⁰²⁾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김찬희를 직접 대면하다가 그가 움직이지 않자 김찬희의 집 앞에 자리를 깔고 무언의 시위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 행동은 결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 것이다. 자선사업을 통해 지역민 사이에 신망이 높았던 김찬희의 입장에서 이규천의 행동은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사설강습소를 건립할 지원금을 기부해달라는 이규천의 요청은 명분도 있었기에 김찬희가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규천의 능동적인 행동의 결과 김찬희는 양정학원 설립자금을 기부했다. 이후 김석한과 성충갑도 양정학원 건립을 위해 기부금을 냈다.

앞장서서 활동한 이는 이규천이었지만 양정학원 건립에는 김교경, 이규로도 함께 참여했다. 김교경, 이규천, 이규로의 경우 모두 유력한 가문 출신이다. 그러나 천도교 신자가 된 뒤 언양향교에 발길을 하지 않으면서 문중이 가진 영향력으로부터 일정정도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들은 면협의회의원을 역임하지도 못했고, 지역 내에서 자선사업을 한 적도 없다.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는데도 전통적 유력자와 협력하여 양정학원 건립을 이끌었다.

이것을 보면 김교경, 이규천, 이규로의 지역 내 영향력은 공직 책임이나 자선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100) 김찬희는 鄉內 극빈자의 戶稅를 여러 차례 代納하였고 춘추로 糶廩소를 설치하고 가난한 향민을 도와주는 등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 1930년 6월 향인들은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고향 마을 입구에 施恩頌德碑를 세웠다(울산·울주향토사 편찬위원회, 『울산·울주향토지』, 1978, 1018쪽). 1937년 울산지방을 소개한 신문기사에서 김찬희는 자선독농가로 소개되기도 했다(〈울산소개관〉 《동아일보》 1937년 7월 25일).

101) 홍은정, 『일제시기 면직원의 존재형태와 해방 후 활동 -울주군 상북면 사례-』,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19~21쪽, 27쪽

102) 양정학원을 건립할 당시 이규천은 김찬희에게 자금을 제공받기 위해 김찬희의 집을 9번 정도 찾아갔다. 처음에는 집에 들어가며 인사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김찬희의 집 앞에 짚을 깔고 돈을 준다는 얘기를 할 때까지 앉아 있었다. 결국 김찬희가 이규천을 방으로 불러 양정학원 짓는 자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2004년 4월 12일 이철우 구술 인터뷰).

연양 천도교 신자들 중에서도 연원의 상위에 존재하며 1910년대 지역에서 포교, 교리강습 등 계몽운동을 전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면서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전통적 유력자들도 이들을 인정하고, 활동의 영역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 유력자와 천도교인 사이의 상호협조는 1910년대에는 보이지 않던 현상이다. 오히려 1913년 연양공립보통학교의 인가를 받던 당시 천도교 측과 연양향교의 인사들이 대립하기까지 했다. 이규천이 연양향교 전교의 인감을 도용해서 향교의 토지 82두 반을 매각 처분하여 학교 설립 비용으로 사용했다.¹⁰³⁾ 연양향교에서는 이 일로 이규천을 告訴하지만 당시 연양군수였던 김철정의 개입으로 최종적으로는 이규천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일제시기 향교의 재산은 공유재산처럼 인식되고 학교경비로 활용이 되는 사례가 많았고 사유재산처럼 방매하는 일을 금하고 있었다.¹⁰⁴⁾ 이규천의 경우 개인이 매각 처분 했으나, 그 공공성이 인정되어 무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양공립보통학교와 양정학원의 사례는, 학교 설립이라는 같은 목적의 활동이지만 실제 전개 과정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 문제해결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군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후자의 경우 지역 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사자들 간에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양정학원 건립 자금이 모이자, 당국으로부터 사설학습강습소 개설허가를 얻어서 교실 2칸과 관리실 1칸으로 된 양정학원을 건립하였다. 이규천이 양정학원의 운영을 맡았고,¹⁰⁵⁾ 휘문의숙에서 신식교육을 받았던 이규장과 이무종이 양정학원의 교편을 잡았다. 이규천, 이무종, 이규장은 모두 천도교와 관련된 이들이다. 학교 설립자금은 전통적 유력자층이 부담했지만, 양정학원 운영은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양정학원은 1927년 일제가 길천국민학교를 건립하고 이를 빌미로 이 학원을 폐쇄할 때까지 8년 동안 존속했다. 양정학원의 교육방침은 ① 신지식 함양 ② 애국애족애향심 함양 ③ 건전한 개척정신 함양 등이었다고 전해진다.¹⁰⁶⁾ 근대지식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애국애족애향심의 함양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려고 했다.

울산청년회의 순장단이 양정학원에 와서 강연을 하기도 했고¹⁰⁷⁾ 학예회¹⁰⁸⁾ 및

103) 이철우(이규천의 손자)의 구술에 따르면 이규천은 당시 연양향교의 전교와 조카와 고모부 사이였다. 고모부의 심부름을 온 것처럼 해서 인감도장을 빌려 향교 소유의 재산을 매각 처분했던 것이다(2010년 11월 14일 이철우 구술 인터뷰).

104) 김정인,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 추이-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2006, 89~96쪽

105) 양정학원 설립의 주도권은 천도교 주도층에게 있었다. 이춘우의 구술에 의하면 양정학원 설립에 참여했던 상남·하북지역의 유지들은 재단처럼 돈을 기부 했다고 한다(2004년 4월 9일 이춘우 구술 인터뷰). 이철우(이규천의 손자)의 구술에서도 지역의 유지들은 자금을 제공했고, 이규천이 양정학원 운영을 맡았다고 한다(2004년 4월 12일 이철우 구술 인터뷰).

106) 상북면지 편찬위원회, 『상북면지』, 2002, 274쪽

하북면의 지내강습소와 연합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연합운동회 당시 관중이 3천명 정도 참석했고, 유지들과 야학회, 청년회 등의 각 단체까지 포함해서 약 97명이 동정금을 기부했고 그 금액도 151원에 달했다.¹⁰⁹⁾ 사립영명학교를 제외하고는 변변한 교육기관이 없던 상황에서 양정학원이 당시 언양지역 내에서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언양 천도교도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한 사건도 있는데 바로 酌川亭 환매입에 관한 건이다. 작천정은 삼남면 교동리의 작괘천에 있는 정자이다. 1902년 언양군수였던 최시명과 언양 선비들의 노력으로 완성되었는데 완성 후에는 일부 선비들의 전유물처럼 되었지만 작천정 주변의 작괘천은 지역민들이 함께 공유하던 공간이었다.

1910년대 토지측량 당시 언양의 전통적 유력자였던 오병선은 작괘천 북쪽의 임야와 작천정의 대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후에 이 재산을 울산의 김홍조에게 매각했다. 지역 주민들은 등기가 오병선 명의로 된 것도, 김홍조에게 작천정을 매각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김홍조는 작천정을 보수한 후 개인별장화하여 일반인들의 亭閣 출입을 통제할 뿐 아니라 작괘천 출입까지 간섭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¹¹⁰⁾

이에 언양의 천도교도였던 이규천, 광해진, 유철순과 최지형은 작천정의 소유자를 찾아가 작천정을 다시 환매입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작천정 포기 승낙을 받아내고,¹¹¹⁾ 1926년에는 작천정과 그 일대의 땅을 환매입해 공용화하는데 성공했다. 언양의 천도교인과 지역의 유지들은 향후 작천정이 개인소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27년에 연명제로 등기를 했다.

작천정은 지역민이 공유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소유자의 입장에서조차 소유를 지속할 만한 명분을 얻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 이규천, 광해진 등은 이 점을 이용해 소유자를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작천정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징성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전 소유주였던 김홍조가 울산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소유주를 설득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이 일에 실질적으로 나선 것은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이었다. 중재가 필요한 일이 발생하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을 선 것이다. 환매입에 성공하면서 언양 천도교도들의 역량이 일정부분 증명되기도 했다. 작천정 일대를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107) 〈蔚山靑年巡講團〉 《동아일보》 1922년 11월 22일

108) 〈강습회의 학예회〉 《조선일보》 1924년 5월 2일

109) 〈울산연합운동〉 《조선일보》 1926년 5월 28일

110) 삼남면지에는 오병선이 김홍조에게 작천정과 그 일대 땅의 소유권을 넘긴 때가 192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삼남면지 편찬위원회, 『삼남면지』, 2002, 664쪽). 그러나 추전 김홍조는 1922년 사망했기 때문에 그 전에 토지 소유권을 넘겼을 것이다. 김홍조의 경우 따로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병선으로부터 땅을 넘겨받은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11) 상북면지 편찬위원회, 『상북면지』, 2002, 495쪽, 작천정 매입은 1922년 김홍조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유주가 누구인지 정확한 기록이 없다. 김홍조의 아들인 김택천이나 애첩이었던 이구소 둘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천도교도들에 대한 신임이 상승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규천은 상남면의 길천리에서 일반 무산아동을 위한 길천노동야학을 운영하기도 했다. 처음 4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다가 90명으로 학생이 증가할 정도로 잘 되고 있었는데 이 야학의 간사가 이무중, 강영상, 서해중 등이었다.¹¹²⁾

중남면에 거주하고 있었던 천도교인인 곽해진, 유철순, 유치두 등도 중남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¹¹³⁾ 중남면은 김효동이 전통적 유력자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었다. 김효동은 김녕 김씨로 한학을 공부하고 科試에 급제하여 彦陽郡 叅事를 역임했고¹¹⁴⁾, 언양금융조합의 초대 조합장이었으며¹¹⁵⁾ 1922년부터 1931년까지 9년 동안 중남면장직을 맡았다.¹¹⁶⁾

중남면에는 몇 개의 서당 말고는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신식교육 실시를 위해 1923년 5월 23일 중남면 유지들은 학교기성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집행위원장은 윤홍조였고¹¹⁷⁾ 집행위원은 유치두, 유철순 외 20명이었다. 신문기사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곽해진 역시 면장이었던 김효동과 함께 학교건설에 힘썼다. 1923년 학교 건물이 완성되었으나 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2년 정도 중남사립보통학교로 유지되었다. 1925년에 중남공립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4년제로 개교하기 전까지 학교의 운영을 곽해진이 맡았다.¹¹⁸⁾ 곽해진, 유철순, 유치두 등 중남면의 천도교 신자들은 학교 설립 뿐 아니라 그 운영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곽해진과 유철순은 1920년대 중남수리조합에서도 활동을 했다. 중남수리조합은 1920년에 결성되었는데 몇 년 동안 당국으로부터 조합으로서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중남면에서는 인가를 받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창립위원으로 조선인 3명과 일본인 4명을 선출했다. 이 때 선출된 조선인이 곽해진, 유철순, 윤홍조였는데¹¹⁹⁾ 곽해진과 유철순이 천도교인이었다. 1926년 중남수리조합이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곽해진과 유철순은 조합의 평의원으로서 1930년대 초반까지 중남수리조합에서 활동했다.

이처럼 대표자로 연이어 선출되는 것을 통해 중남면 지역에서 곽해진이나 유철순 등이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영향력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영향력

112) <상남면 양리아학 성황> 《동아일보》 1928년 1월 10일

113) 유치두의 경우 1910년대 포교상황에서는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다. 1921년 4월의 《公函》에서 곽해진, 유철순 등과 함께 중남면에서 포덕을 담당할 진도원으로 임명이 되는 것을 통해 중남면의 천도교인임을 알 수 있다. 유치두는 1920년대 중남면의 지역사회운동에 참여했다.

114) 《조선신사보감》 262쪽

115) 울산군, 『蔚山案内』, 울산군, 1917, 41쪽

116) 직원록에는 1923년부터 김효동이 면장이 되었다고 나오지만 신문 기사를 통해서 1922년부터 중남면장을 역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효동 중남면장 호평〉 《동아일보》 1922년 5월 19일,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1923년~1931년).

117) <중남면 학교기성회> 《조선일보》 1923년 6월 1일 ; 윤홍조는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중남면장을 역임한 인물로 지역에서 유력성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1919년~1921년

118) 2003년 1월 22일 곽동하(곽해진의 아들) 구술인터뷰 참조

119) <중남수리조합 不遠間 認可될듯> 《조선일보》 1924년 9월 26일

은 1929년 중남면장 선출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면장 선출은 본래 임명제였다.¹²⁰⁾ 중남면의 경우 1922년부터 김효동이 면장을 했고 평가도 상당히 좋았다. 1929년 김효동은 더 이상 면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본인이 면장을 너무 오랫동안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면민들은 中南面公職者大會까지 개최하면서 김효동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에 공직자대회에 참석한 구장과 면협의회의원들은 면장 투표를 진행했다. 이 투표에서 유철순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군당국에 유철순을 면장으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진정위원도 함께 선출했는데 유치두와 일본인 牛來千里가 선정되었다.¹²¹⁾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남면민의 이런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중남면장은 여전히 김효동이었다. 비록 이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투표에서 유철순이 선출되는 것을 보면 중남면 지역에서 유철순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1925년에 중남소녀회에서 주최한 음악 강연회가 중남사립보통학교에서 열렸을 때 광해진 등이 연사로 참석했고¹²²⁾ 중남소년단에서 회관 기성을 위해 회관기성부를 조직하고 役員을 뽑아 지방 유지를 방문하고 동정을 구할 때도 광해진은 讚成部員으로 활동을 했다.¹²³⁾ 두동면의 황선운도 3.1운동 직후에 만주로 피신했다가 일제가 문화정치를 펴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교육운동 및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했다.¹²⁴⁾

이처럼 언양의 천도교도들은 지역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강습소나 사립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건립에도 앞장섰다. 교육을 통한 계몽은 천도교에서도 계속 강조하던 것이었고 1920년대 사회운동의 중요한 경향 중 하나였다.

지금까지 언양 천도교 신자들이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전개하거나, 사안에 따라서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함께 활동을 했던 내용을 살펴보았다. 천도교 신자들은 이런 개별적인 활동 외에 단체를 결성하여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1925년 5월 3일에 창립된 사사회이다. 사사회에는 이규장, 이무중, 이규경, 광해진, 유철순, 김기오, 최지형, 윤동명, 김원룡 등이 참여했는데 유철순이 사사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사사회 구성원을 보면 다수가 천도

120) 면장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 군수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도장관에게 추천하여 도장관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1920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면협의회의원이 설치된 이후에는 군수가 면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면협의회의원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있으나 결정권은 결국 군수에게 있다(홍은정, 『일제시기 면직원의 존재형태와 해방 후 활동 -울주군 상북면 사례-』,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7쪽).

121) <공로많은 울산 중남면장 유임 권고 不聽, 후임 투표 陳情> 《조선일보》 1929년 2월 6일

122) <중남소녀회 주최 음악강연회> 《조선일보》 1925년 1월 19일

123) <중남소년단 회관기성노력> 《조선일보》 1925년 12월 18일 ; 중남면에는 이미 1923년에 중남학우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중남학우회의 회원자격은 同面에 거주하는 조선인 남녀학생이었고 설립목적은 건전한 청년을 양성하는 것, 강령은 ① 智德培養 ② 身體鍛鍊 ③ 社會奉獻이었다(〈中南學友會 창립〉 《조선일보》 1923년 8월 13일). 중남학우회에서 활동한 인사로 광해진, 유철순, 유치두와 같은 천도교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광해진이 중남소녀회와 중남소년단에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남학우회 결성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124) 蔚山政策研究所 獨立運動史 再照明委員會, 『蔚山の 獨立運動史』, 2008, 98쪽 ; <斗東인사의 교육 열> 《조선일보》 1923년 11월 14일

교인이었는데, 특히 이규장, 이무중, 이규경, 김기오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사시회의 강령은 ① 명칭은 사사회, ② 목적이 동일한 사람으로 조직함, ③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함, ④ 집회일에 우리들의 생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 발표함, ⑤ 집행위원 1명을 둠, ⑥ 회의는 매년 춘추 2회로 함, ⑦ 회의시마다 회비 1원을 지참함 이다.¹²⁵⁾ 강령을 보면 사시회의 지향점이 지식향상과 생활개선이라는 개량주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사회에 참여한 이들은 조선일보 언양지국을 경영하면서 신문화 운동 보급에도 앞장섰다. 본래 언양에는 조선일보 언양분국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업무를 확장하기 위해 지국으로 변경하고 지국장은 곽해진, 총무 김기오, 기자는 김기오, 김원룡, 김동수로 직원을 뽑았다.¹²⁶⁾ 사사회 활동이나 언론단체 결성 활동은 기본적으로 계몽주의적 문화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는 활동이다. 이것은 언양 천도교도들의 지역사회운동이 改良主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언양 천도교도의 혁신청년운동

언양에서는 천도교청년회가 결성되지 않았고, 언양의 천도교인들을 단일한 활동방식으로 묶어주는 천도교계통의 사회운동 단체가 없었다. 천도교인들이었지만 종교적 활동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전개했다. 같은 천도교신자였지만 연령에 따라 운동방식의 분화가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천도교 청년들인 이규장, 이무중, 이규경, 김기오 등은 언양에서 각 면 단위로 결성된 혁신청년단체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 이들은 이 시기의 일반적인 청년 운동가들이 그러했듯이 사회주의의 영향도 받았다.

1920년대 언양에서 결성된 청년단체는 언양면을 중심으로 하는 언양청년회와 상남·하북면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청년회, 중남면을 중심으로 하는 중남청년단 등이었다. 이 중 김기오는 언양청년회에서, 이규장, 이무중, 이규경은 시대청년회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 이들 천도교 청년들의 활동내용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천도교 청년의 활동단체 및 활동내용

이름	활동단체 및 활동내용	비고
이규장	언양3.1운동(1919), 시대청년회(1924), 사사회(1925), 울산사학회 간사(1925), 상하북 노동야학회연합회 의장(1925)	천도교인, 최해규와 매제지간
이무중	언양3.1운동(1919), 시대청년회(1924), 사사회(1925), 상남면 길천노동야학회(1920), 양정학원 교사(1922) 길천노동야학회 간사(1928), 언양노동야학회연합회 총무(1929), 신간회울산지회 언양	이규천의 조카

125) <彦陽에 四時會> 《조선일보》 1925년 5월 11일

126) <社告> 《조선일보》 1923년 12월 19일

	분회원(1930)	
이규경	연양3.1운동(1919), 시대청년회(1924), 사사회(1925), 상하북 노동야학회연합회 집행위원(1925), 상남농민조합 집행위원(1928), 자오회(1926), 연양기생조합설립 반대운동(1928), 연양 노동야학회 연합회 창립임시의장(1929), 신간회울산지회 순회부원(1928), 신간회 울산지회 연양분회원(2930)	상남면장 이조영의 아들, 이규인의 동생
김기오	연양청년회 지방순회강연(1921), 연양여자야학회 교사(1923), 사사회(1925), 울산기자단 창립 임시의장(1926), 연양소년소녀연맹 감사위원(1926), 연양남부농민회 간사(1926), 양산청년회 신임집행위원(1927), 양산청년동맹 양산지부장(1927), 신간회양산지회 설립준비위원(1928)	1927년부터 양산에서 활동함.

출전 :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시대일보》, 『연양읍지』(2001), 『상북면지』(2002) ; 김승, 「일제하 연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 『釜大史學』 제 28·29합집, 2005

이 네 사람은 활동에 있어서 유사점이 보인다. 청년회에 가입하고 야학이나 강습소의 교사가 되거나 각종 사회 단체의 실무자 일을 했고, 신간회의 지방 지부 결성 및 활동에도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 활동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각각 울산과 양산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에 일어난 혁신청년운동은 전국적인 경향이였다. 이전까지의 청년운동은 지역 유지 중심의 문화운동이였다. 혁신청년운동은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주의 계열의 계급투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였다. 각지의 청년단체들이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종전의 1인 회장제는 집행위원제로 변경되었고, 재정운영에서도 회비를 중심으로 하면서 유지들의 개입을 견제했다. 또 청년회 가입에 연령 제한을 두기도 했다.¹²⁷⁾ 혁신청년운동은 전국적인 움직임이였다. 연양에서도 기존 청년단체들에 대한 혁신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새로운 청년단체가 결성되기도 했다.

1921년에 이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연양청년회의 경우¹²⁸⁾ 1923년 회장제였던 것을 간사제로 변경하고 종래의 회칙을 폐지한 후 불성문법으로 변경하고 새로 임원을 선출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조직을 혁신시켰다.¹²⁹⁾ 연양청년회에서는 김기오가 주로 활동을 했다.

1924년에 상남면과 하북면 일대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상남하북시대청년회를 결성했다. 시대청년회에는 이규장, 이규경, 강영상, 정일수, 이무중, 정장수, 정재홍, 김대식, 김택선, 이재호 등이 집행위원으로 있었는데¹³⁰⁾ 이규장, 이무중,

127) 안건호·박혜란,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94~95쪽

128) 〈연양청년회 巡講團조직〉 《동아일보》 1921년 8월 23일 ; 〈연양청년회 藝劇興行〉 《동아일보》 1921년 12월 25일

129) 〈一新된 연양청년회〉 《조선일보》 1923년 8월 22일

130) 〈時代青年의 前途〉 《조선일보》 1924년 7월 5일

이규경 등이 천도교 출신 청년들이었다. 창립당시 시대청년회의 강령은 “의식개발, 계급타파, 노동분위”였다.¹³¹⁾ 강령을 보면 시대청년회가 사회주의적인 계급노선을 적극적으로 표방했음을 알 수 있다.

청년회의 운동노선에 맞게 시대청년회는 농민단체들을 조직하는데 주력하였고 상남면 길천리 노농합성회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하여 1926년 3월 4일에 북남농민조합을 만들었다. 북남농민조합에는 김대식, 강영상, 이규경 등이 활동했는데, 회의에서 울산군내에 산재한 농민기관과 상의하여 郡聯盟을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¹³²⁾ 1927년 11월 7일 시대청년회와 북남농민조합은 연합으로 露革기념식을 거행하기도 했다.¹³³⁾ 露革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대청년회와 북남농민조합이 연합으로 기념식을 거행한 것은 이 두 단체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과, 지향점이 사회주의와 계급투쟁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1920년대 후반 언양에서 민족문제가 지역민의 주요 관심사로 표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27년 10월 18일 언양면 동부리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축살한 것이다.¹³⁴⁾ 사건의 전말을 보면 상남면 등억리에 사는 솟장수 김경도가 언양면 동부리의 카리야(刈屋益褪)의 가게 앞에서 여주인에게 담뱃불을 청하였다가 시비가 붙었다. 방안에 있던 카리야가 뛰어 나와 김경도를 때리고 고환을 발로 차서 김경도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 일본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김경도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 의원이 처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카리야에게 항의를 하러 갔던 김경도의 형도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1927년 10월 24일에 최초 보도가 나간 이후에 1928년 1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15회의 관련 기사가 나올 정도로 언양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에 분개한 촌민 500여명이 몰려가서 카리야의 집을 부수는 일도 있었고¹³⁵⁾ 경찰이 일본인 가해자와 일본인 의사를 처벌하는 것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당시 신문기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지칭하기 보다는 ‘조선인, 일본인’으로 기사의 제목을 붙이고 있었다. 이 사건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일본인과 조선인 즉 양 민족 사이의 사건으로 비춰졌다.

이와 관련해서 언양청년회와 상남하북시대청년회는 언양청년회관에서 연합회를 열고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 때 유철순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사람들이

131) 보통 청년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이름을 앞에 붙이고 활동하는 것에 비해 시대청년회는 ‘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명칭 사용 자체가 이념 지향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김승, 2005, 「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 『釜大史學』 제28·29합집, 410쪽).

132) <新名稱은 북남농민조합> 《조선일보》 1926년 3월 19일

133) <상남면 露革 연합기념> 《중외일보》 1927년 11월 12일

134) <日人 切山某 조선인 蹴殺-불알을 차서 죽게 하여, 가해자 취조> 《조선일보》 1927년 10월 24일

135) <冤死 동포 報讎로 5백 촌민 殺到 破屋-일본사람이 조선 사람을 차 죽인 때문에 -犯人과 함께 촌민도 검거> 《조선일보》 1927년 10월 26일

이 사건의 실행위원으로 선출됐다.¹³⁶⁾ 이 문제는 결국 울산의 각 청년단체들이 모두 가담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정도로 큰 사건이 되었다. 청년회 결의로, 일본인 가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쓴 부산일보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¹³⁷⁾ 공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인 가해자는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다.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축살사건’은 1920년대 후반 언양지역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당시 언양지역에는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그 바닥에 깔려 있었다. 특히 일본인 경찰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는데, 이것을 보면 지역민들은 식민지 당국의 공권력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언양지역 청년단체는 그런 지역민의 분노와 불만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했다.

1927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신간회 지회가 결성되었다. 상남하북시대청년회 역시 울산군 東面의 시대청년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청년운동 방향전환에 관한 건’과 ‘전 민족유일당 축진에 관한 건’을 논의하면서 신간회 울산지회의 결성에 참여했다.¹³⁸⁾ 상남하북시대청년회원이었던 이규경은 신간회 울산지회가 설립될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29년 10월이 되면 울산에서는 3개 정도의 신간회 분회조직이 결성되었다. 신간회 울산지회 언양분회의 창립은 일제에 의해 몇 번이나 무산된 끝에 1930년 4월 26일 언양청년동맹회관에서 결성되었다.¹³⁹⁾ 신간회 언양분회가 설립되었을 때 신학업을 비롯한 언양청년회원들과 천도교도 중에서는 이무종과 이규경이 참여했다. 김기오의 경우 양산에서 신간회 활동에 참여했다.

1920년대 천도교 청년들은 혁신 청년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야학 등 교육운동에도 종사했다. 지역의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지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20년대 후반에는 신간회 울산지회 언양분회 조직에 참여했다.

3.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성격

지역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지역의 사안을 주도하고 지역 내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지역엘리트라고 한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과 향리층이 지역엘리트에 속했다. 근대시기에 새로운 지역엘리트들이 형성되었는데 지식인, 관료, 지역유지, 자본가, 지주 등이 근대교육, 경제력, 당국의 신용, 지역민의 신망 등을 기반으로 삼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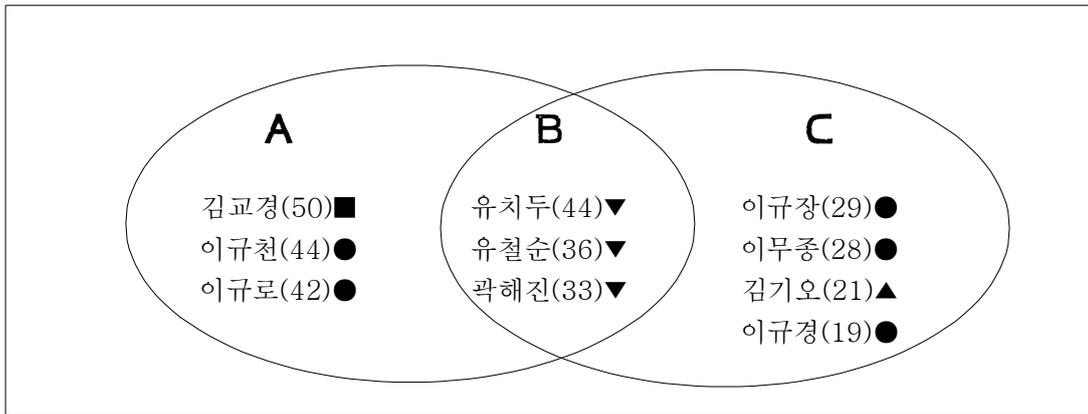
136) 〈各 團體 蹶起, 련합으로 토의〉 《조선일보》 1927년 10월 28일

137) 〈권기한 각 사회단체 각지에 경고문 발송 - 부산일보사장과 지국장에게도〉 《동아일보》 1927년 11월 15일

138) 〈時代青年臨總〉 《동아일보》 1927년 7월 30일

139) 《조선일보》 1929년 12월 16일, 1929년 12월 17일, 1929년 12월 22, 1930년 5월 2일

언양의 천도교도 역시 1920년대 언양의 사안을 주도하고 지역 내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엘리트로서 활동을 했다. 활동의 양상은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비슷한 나이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활동의 교집합이 높게 나타났다. 천도교인의 사회운동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6>과 같다.



비고 : ()안의 숫자는 1920년의 해당 인물 나이임, 이름 뒤의 도형은 거주 지역을 표시 한 것임. 같은 모양이면 동일 지역에 거주. 각 활동의 내용은 A=양정학원 건립, 상남면 활동, B=중남수리조합, 중남면 활동, C=청년운동, A+B=작천정 환매입, B+C=사사회 활동임.

<그림6>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활동

<그림6>을 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은 쪽에서는 지역의 사안을 주도하거나 계몽운동, 개량주의 운동을 통해 지역엘리트로 활동을 한 반면에 연령이 낮은 쪽에서는 혁신청년운동을 통해 지역엘리트로 활동을 했다.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은 천도교연합회의 조직 안에 있었지만, 천도교 관련 운동단체는 결성되지 않았다. 사회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천도교 신자들이 단일한 하나의 활동단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같은 천도교인이지만 운동에 있어서 분화의 양상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물론 연령이라는 변수도 작용했다.

천도교 운동 단체는 없었지만, 종교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열려 있었다. 천도교연합회가 천도교 중앙교단으로부터 분리되고 난 이후 언양 천도교는 중앙교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천도교연합회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다. 김교경이 천도교연합회에서 활동했던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24년 교인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나, 1929년, 1930년 정기 총회에 울산지부로 계속 참석을 하고 있었다. 1929년에는 회비를 납부한 기록도 있다. 또 1931년까지 김교경이 천도교연합회 내 선전부 간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거주지가 언양지역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것은 김교경이 이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언양에 왕래해야 했음을 뜻한다. 김교경의 언양 왕래는 천도교 신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상의 기록과 정황으로 보아 1930년대 초반까지 천도교 교구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림6>에서 보이는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활동은 지역사회운동과 혁신청년운동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분화되어 전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서로의 활동에 교차되는 부분이 있었고, 협력관계도 나타났다.

김교경, 이규천, 이규로가 언양의 전통적 유력자층과 협력하여 양정학원을 건립했을 때 이무종과 이규장이 양정학원의 교사가 되었다. 이규천이 길천리에서 노동야학을 운영할 때 이무종이 간사를 맡았다. 이무종은 이규천의 친조카로, 정식으로 천도교 신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규천의 영향을 받아 3.1운동 이전부터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곽해진이 조선일보 언양지국을 운영할 때 언양청년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던 김기오가 기자가 되었다. 언양면에 거주하고 있던 김기오는 1920년에 천도교에 입교했다. 1920년대 언양 읍내 지역의 언양청년회와 읍외 지역의 시대청년회 사이의 활동에는 구별되는 부분이 있었다.¹⁴⁰⁾ 그러나 읍내 지역에서 언양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김기오는 읍외 지역의 활동가들과 공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읍외 지역 활동가들과 김기오는 천도교 신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규장, 이규경, 이무종이 참여하고 있던 시대청년회에서,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축살당한 사건을 놓고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할 때 유철순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곽해진, 유철순, 이규장, 이무종, 김기오, 이규경은 함께 사시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다.

언양 천도교 신자들은 처음 신자가 될 때부터 사회적인 관계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기에, 운동이 분화되는 양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10년대부터 천도교 신자였던 이규장과, 정식 신자는 아니지만 이른 시기부터 천도교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이무종의 경우 천도교 청장년층의 지역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특히 높았다.

1924년 시대청년회 결성과 활동으로 천도교도들 사이에서 혁신청년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사회운동의 양상이 분화되었으나, 1925년 사시회를 결성하며 여전히 공조체제를 유지했다.

1920년대 천도교 신자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운동과 혁신청년운동으로 분화되었지만 이들의 활동에는 많은 부분에서 교집합이 존재하고 있었다. 함께 활동을 하는 동료도 같은 천도교 신자인 경우가 많았다. 천도교 관련 청년단체나 사회운동 단체가 결성되지는 않았지만, 언양에 천도교 교구는 1920년대에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종교적 활동을 지속할 공간이 있었고, 이 곳을 통해 천도교 신자들을 결

140) 김승은 이런 차이를 언양 읍내와 읍외 지역 활동가들 사이에서 약간의 신분적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했다. 언양청년회에는 천도교 관련자들이 거의 없었지만 시대청년회에는 몰락향반계통의 천도교 관련 인물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김승, 「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 『부대사학』 제28·29 합집, 2005, 7~8쪽).

속시키는 동시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장으로 활용이 가능했다.

언양의 천도교인들은 1920년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언양의 지역엘리트로 성장했다. 언양에서 활동한 천도교인들 중에서는 유력한 문중 출신이 아닌 이도 있고 근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재산이 많아 자선사업을 베풀면서 지역민에게 신망을 얻거나, 면장·면협의회의원 같은 공직을 역임하며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 대신 근대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천도교를 통해 근대적 사상 및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가문의 영향력이라는 전통적인 勢를 가지지 못한 이들은 1910년대 성장한 천도교세가 뒷받침이 되었다. 자선사업이나 공직을 역임하지 않았지만 3.1운동을 주도하면서 지역민에게 신망을 얻기도 했다.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면면이나 성격은 모두 달랐지만 서로의 활동에 참여하며 협력했다.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이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엘리트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천도교는 활동의 배경이 되고 동료를 만들어 주었다. 천도교는 1920년대 신자들이 사회운동을 전개할 때 각각의 활동을 이어서 하나의 단위, 하나의 운동으로 완성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다. 이들의 활동은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IV. 1930년대 이후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위축

1. 식민체제의 강화와 언양 지역사회운동의 변화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을 겪은 일본은 경제적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대륙침략을 감행했다. 전쟁과 함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통치방식도 변화하게 되었는데 농촌진흥운동과 중견인물 양성을 통해 촌락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다.¹⁴¹⁾ 또 사상전향정책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해 사상을 통제함과 동시에 친일파를 양성하는 등 운동세력을 분열시켜 독립운동의 역량을 약화시켰다.¹⁴²⁾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도 이어졌다.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이후 1930년대 초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의 대중투쟁이 고조되는 시기로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 운동도 시작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노선 변화와 함께 신간회와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 문제가 거론되었고 발전적 형태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해소 결정이 내려졌다. 학생과 청년이 중심이 되어 반제투쟁을 계획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울산과 언양에서도 1929년 말부터 일제 식민지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사회운동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울산읍 천도교 주최로 8년 동안 계속된 노동야학을 강사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명령을 내린 사건이다.¹⁴³⁾ 곧이어 언양 농민조합이 경영하던 언양 농민 야학도 강사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돌연 폐쇄조치가 내려졌다.¹⁴⁴⁾ 비록 야학은 폐쇄되었으나 언양 농민조합은 간담회를 개최하며 신주극과 이동계를 새로 대표로 선출하고 소작인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조직을 재정비했다.¹⁴⁵⁾ 그러나 일제는 각지의 노농조합들을 해산시키면서 언양의 농민조합에 대해서도 해산조치를 내렸다.¹⁴⁶⁾ 심지어 일제는 동창회의 운영에까지 간섭을 했다.¹⁴⁷⁾ 동창회의 위원으로 언급된 이들은 울산청년연맹의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역임한 인물들이었는데 결국 이들을 탄압하기위해 동창회의 총회에까지 간섭을 했던 것이다.

193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울산과 언양에서 일제 당국에 저항적인 운동을 전개했던 지역엘리트의 활동은 더욱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 일제 당국의 감시와

141) 김민철, 『조선총독부의 촌락지배와 촌락사회의 대응 -1930~40년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99쪽

142) 장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역사와 현실』 37, 2000

143) 〈八年間 繼續된 야학을 閉鎖命令〉 《조선일보》 1930년 10월 19일

144) 〈彦陽農民夜學 돌연히 閉鎖命令〉 《조선일보》 1931년 10월 27일, 《조선일보》 1931년 10월 29일, 《동아일보》 1931년 10월 29일

145) 〈언양농민조합 간담회 성황〉 《조선일보》 1932년 2월 7일

146) 〈경남 一帶 산재한 勞農組大彈壓〉 《동아일보》 1933년 2월 14일 ; 언양의 농민조합은 1928년 3월에 관변단체인 농청을 개조, 연합시켜 조합으로 조직했다. 주로 소작관계 개선투쟁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고 조합원은 200여 명에 이르렀고 경남지역 조선농민총동맹에도 가입했다(蔚山政策研究所 獨立運動史 再照明委員會, 『蔚山の 獨立運動史』, 2008, 204쪽).

147) 〈경찰 간섭으로 동창회 해산〉 《동아일보》 1931년 8월 20일

탄압으로 대부분 지하조직으로 숨어들어가면서 활동의 범위가 좁아졌다. 지역엘리트의 활동에 있어서도 저항적인 내용의 활동은 위축되었지만 합법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언양 지역민들의 관심이 지역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된 사안에 집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사안을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1930년대 언양지역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문제들을 알 수 있는데 주로 도로 부설, 시장 이전, 公醫 설치, 학교 설치 등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기사가 1920년대와 비교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중요하게 부각되자,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움직이던 지역엘리트들이 활동할 사안은 더욱 늘어나고 공간도 확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엘리트의 저항적 활동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조선인 축살사건’ 당시의 지역 분위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언양 지역민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를 서로 자기 동네로 끌어오기 위해 지역 주민 간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고¹⁴⁸⁾, 언양 公醫 설치문제, 시장이전, 공설시장 설치, 공립보통학교의 설치 운동 및 학급증설을 위한 언양 면민대회 등도 당시 지역의 주요한 사안이었다. 구체적인 활동의 양상을 보면 ‘유지들’의 활동이나 면민대회나 시민대회 개최에 관한 것이 이 시기 신문기사 상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면민대회나 시민대회에서는 주로 안전에 대해 토론을 벌인 후 대응책을 결의하고 운동을 이끌 대표나 실행위원을 선정했다. 그 후 대표나 실행위원으로 하여금 당국에 진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때에는 지역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고 여론을 모으는 방식을 취했다.¹⁴⁹⁾ 이 과정에서 대표나 실행위원으로 뽑힌 이들, 혹은 여론을 모으는 지역의 유지들이 1930년대 지역에서 활동한 지역엘리트들이었다.

학급증설과 관련해서 언양에서는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거기에 모인 면민들이 독지가의 회사를 받고 권기를 하고 난 후 회의를 통해 회사금 사용 내용과 기부금 모금에 대해 결의를 했다.¹⁵⁰⁾ 언양에 公醫를 배치할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언양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여론을 모았다. 조선인이 다수가 거주

148) 삼동면은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는데 언양과 목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삼동면에 개설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처음 당국의 결정은 삼동면의 중간을 통과해 온산면의 목도와 언양-양산간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둔기리의 주민들이 이 노선을 둔기리 부근을 지나서 언양-반천 선에 연결되도록 노선을 변경하려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삼동면 사촌리와 조일리 주민들은 원안대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운동을 벌이며 마을 간에 문제가 생기자 삼동청년회에서는 면민대회를 개최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언양-목도 線 축성으로 삼동면간 압투 필경 면민대회를 개최해 - 삼동청년회 주최로〉《조선일보》1931년 3월 3일).

149) 허영란, 「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의 전개과정-장시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21호, 2009, 236~237쪽

150) 〈학급증설문제로 언양 면민대회〉《조선일보》1936년 10월 12일 ; 〈농업지 언양에서 農實校 유치 운동 울산 오백면민 권기〉《동아일보》1938년 1월 11일 ; 〈언양 농보기지 10정보를 제공 부산 板正씨 장거〉《조선일보》1938년 1월 16일

하고 있는 만큼 조선인 공의가 왔으면 좋겠다는 면민들의 뜻을 당국에 전달하기도 했다.¹⁵¹⁾ 또 언양 시장을 이전하는 문제로 언양 면민들이 당국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도와 군 당국에 진정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도 있다.¹⁵²⁾ 이러한 지역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사람들의 증론을 모으는 유지들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위원들이 모두 지역엘리트들이었다. 천도교 신자들 중에서도 곽해진, 유철순, 이규천 등이 언양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일부 보이기도 한다.

이 외에도 자선사업을 통해 지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의 엘리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자선사업은 대체로 소작료를 인하해주거나 빈농들의 세금을 대신 내주거나 학교 및 교실을 건축할 때 기부금과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⁵³⁾

1930년대 울산과 언양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지역엘리트는 울산의 公醫이면서 도평의회위원을 지낸 안효식이다. 안효식은 1930년대 울산과 언양에 걸쳐 여러 사안에 발언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 언양에 農實校를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스스로 토지를 기부하기도 하고¹⁵⁴⁾ 유력한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학교 건립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1930년대에는 안효식처럼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엘리트들이 필요했다. 저항적 활동을 하는 지역엘리트들은 일본의 식민지배 체제가 견고해지고 탄압이 계속 되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고,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기는 힘들었다. 지역사회의 이런 변화는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2.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위축과 새로운 모색

1930년대에 들어서면 언양의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활동 영역은 전체적으로 좁아졌고, 활동에서도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식민지 지배체제가 강화되어 합법적인 활동의 영역이 좁아졌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야학들은 폐쇄되고 있었고 천도교 청년들이 참여

151) 〈언양면 공의 후보인선문제 만여면민이 주목〉 《조선일보》 1933년 7월 9일, 그러나 실제로 언양에 공의로 온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1934년 기사에 보면 일본인 공의의 이름이 나오고, 통역이 없어 면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도 있다(〈지푸테리아를 폐렴으로 오진, 환자는 필경 사망하였다, 언양읍 공의에게 불평〉 《동아일보》 1934년 4월 17일).

152) 〈시장 이전 문제 언양시민 물의 중, 당국에 진정도 준비〉 《조선중앙일보》 1935년 8월 13일 ; 〈언양 시민이 결속 시장 이전을 반대 군, 도 당국에 진정준비〉 《조선일보》 1935년 8월 29일 ; 〈언양시장이전을 萬戶 주민이 갈망, 공설시장설치가 급무〉 《동아일보》 1938년 9월 30일

153) 〈자진 소작료 감하, 每人당 돈 십전까지 주어, 언양군 지주에 청성〉 《조선중앙일보》 1934년 2월 9일 ; 〈학급 증설 위하여, 2000여원을 회사, 언양 유지의 장학〉 《조선중앙일보》 1936년 8월 22일 ; 〈언양 박현진씨 동정 빈민의 호세 부담〉 《동아일보》 1937년 6월 24

154) 〈언양농업교 신설에 토지 3만평 기부 新春에 개교토록 活動 안효식씨가〉 《동아일보》 1938년 1월 23일

했던 혁신청년운동이나 농민조합 관련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다음은 천도교 지도부의 무능과 친일파로의 변질이다. 식민지 말기 천도교 지도부에서는 ‘친일파’로 전향하는 이들이 생겼고 천도교의 일상의례에서도 친일적인 색채가 가미되었다. 국방성금을 걷거나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위한 특별기도가 실시되기도 했다.¹⁵⁵⁾ 지도부가 천도교가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적인 속성을 포기하면서 천도교의 사회적 위상이 전반적으로 약해졌다. 언양의 경우 1940년대 초 천도교연합회가 천도교 중앙교단에 통합되기 전까지 계속 천도교연합회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천도교연합회는 자체의 세력이 약한데다가 주로 서북지역과 만주에 기반을 두고 활동을 했다. 경상도 지역 교구의 활동을 조직화 하는 것에는 소홀했고 이것은 교세의 약화로 이어졌다.

또 다른 요인은 1930년대 언양 지역사회가 변화하면서 천도교계 지역엘리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언양 지역민의 주요 관심사는 지역의 개발과 학교 설치 등 지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것을 대변해 줄 지역엘리트가 필요했다. 천도교계 지역엘리트 중에서 일부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1930년대에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천도교 인사는 극소수였다. 1920년대에 보였던 천도교 신자들 사이의 협력이나 공조체제는 이 시기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다수의 천도교계 지역엘리트들의 1930년대 활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언양의 천도교세에도 영향을 주었다.

1940년에 천도교 총부의 임원과 각 지방교구의 신임교구장 및 전교사를 정할 때 울산교구는 언급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¹⁵⁶⁾ 언양의 교세는 하락했다. 이 시기는 이미 구과, 신과, 천도교연합회가 하나의 천도교 중앙교단으로 통합된 이후이므로 언양 혹은 울산 교구 내지는 전교실이 설치되었어야 했다. 울산에 교구실이 설치되었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의 경주교구에 통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약화는 천도교세의 약화로 이어졌고, 이것은 다시 지역엘리트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양의 천도교도들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고 급속히 개량화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인 이규천은 1935년에 상북면협의회원을 역임한다.¹⁵⁷⁾ 면협의회원이 되고 나서 이규천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무종의 경우도 1930년대 들어서면 농사를 지을 뿐 별다른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고 한다.¹⁵⁸⁾

155) 지방의 교인들 중에서는 성미대금을 중앙총부에 내지 않거나 교단에서 이탈하여 다른 단체에 가입하는 등 친일성향의 중앙교단에 저항하는 이들이 있었다(김정인, 『천도교 근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2009, 345쪽).

156)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5, 371~374쪽

157) 홍은정, 2009, 『일제시기 면직원의 존재형태와 해방 후 활동 -울주군 상북면 사례-』,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5쪽

158) 이철우(이규천의 손자)의 구술에 따르면 이무종은 1930년대 이후 일제의 감시를 더욱 많이 받아서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무종에 대한 감시는 그의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서 이무종의 동생 중 한명은 그런 형과 세상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고 또 다른 동생인 이갑중은 일제 말기에 친일행위를 일부 했고 1943년에는 상북면의 부면장을 지냈다고 한다(2004년 4월 12일 이철우 구술 인터뷰).

1920년대 혁신청년운동을 전개했던 이규경은 1931년에 언양수리조합의 반대 위원으로 활동했다.¹⁵⁹⁾ 언양수리조합 반대운동은 언양의 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언양에 설치된 수리조합의 인가를 취소하려고 벌인 운동이었는데 약 5백명의 지주가 활동한 사건으로 1932년 5월에 창립인가가 취소되었다.¹⁶⁰⁾ 이규경의 경우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천도교계 지역엘리트 중에서 1930년대에도 많은 활동을 하는 이들은 중남면의 광해진, 유철순, 유치두 등이다. 광해진과 유철순은 1920년대부터 중남수리조합에서 활동을 했다. 1920년대의 활동은 주로 수리조합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1926년 중남수리조합이 당국의 인가를 받게 되자 광해진과 유철순은 중남수리조합 운영에 참여했고, 이런 활동은 193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중남면의 수리시설은 처음부터 공사설계가 잘못되어 수리시설이 완성된 후에도 반복해서 저수지가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중남수리조합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조합비를 더 걷는 식의 미봉책을 취하면서 중소지주들의 많은 불만을 샀다.¹⁶¹⁾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31년 3월 15일에 중남수리조합 평의회회를 개최했고 광해진과 유철순이 평의원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 광해진은 수리조합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조합비만을 증수하는 예산안을 비판했다가 조합장에 의해 퇴장당하였다.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 평의원 간 의견이 대립하자 조합장이 임의로 예산안 승인을 결정했고¹⁶²⁾ 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예산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31년 3월 22일 중남보통학교에서 지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지주대회에서는 중남수리조합의 설계가 잘못된 것에 대한 성토와 지금까지 구제책 없이 조합비 증수만을 독촉한 조합당국 및 감독관청에 대한 지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주들은 증수비를 감소시킬 것과 저수지 확장공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이 지주대회에서는 천도교인이었던 유치두가 의장을 맡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당국에 진정할 위원으로는 선거를 통해 유철순과 高衛仙太郎이 선출되었다.¹⁶³⁾ 유철순과 광해진의 중남수리조합 활동과 유치두의 지주대회 활동을 통해 이들이 중남면의 중소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개량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1930년대 들어 변화된 언양 지역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유철순, 광해진, 유치두는 개량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1930년대 초반에도 지역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철순과 유치두는 1931년 이후 지역에서의 활동내용을 파악하기가 어

159) 蔚山政策研究所 獨立運動史 再照明委員會, 2008, 『蔚山の 獨立運動史』, 345쪽

160) <문제의 언양수조 창립인가 취소 결국 반대측 승리로 兩派 손해 실로 多大> 《조선일보》 1932년 5월 29일

161) 조합비가 잘 걷히지 않아 조합의 빚은 계속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지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중소지주들 중에서는 조합비의 부담으로 파산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울산중남수조 저수지 고갈로 水畝도 廢農되겠다고> 《조선일보》 1929년 8월 6일).

162) <중남수조 경영난 징수된 조합비 근2할. 예산심의 평의석상에서 파탄> 《조선일보》 1931년 3월 18일

163) <중남수조비 과중 파산지주가 속출. 年復 증대되는 이식감하와 보조로 저수지공사 확장을 하기로 지주 대책회서 결의 > 《조선일보》 1931년 3월 25일

려웠다. 1930년대 후반에도 중남면 수리조합과 관련한 신문기사가 몇 건 있었지만 더 이상 유철순과 유치두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철순의 경우 1944년에 작천정 보존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을 했던 행적이 전해진다.¹⁶⁴⁾

1930년대 후반까지 언양에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한 천도교 인사는 곽해진이 다. 그는 1930년대 초반에 중남수리조합 활동을 했고, 1935년과 1936년에는 제2대 삼남면장을 역임했다.¹⁶⁵⁾ 1937년과 1939년에는 중남수리조합의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¹⁶⁶⁾ 삼남면장이 된 후 곽해진은 작천정 주변에 벚꽃 길을 조성하며 그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을 했다.

당시 곽해진이 면장을 하고 있던 삼남면은 중남면과 삼동면이 합면되어 만들어졌는데 면소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양 면간에 갈등이 많았다. 합면 되기 전에 중남면민들은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삼남면사무소를 교통이 편리한 중남면에 설치해 줄 것을 진정하기 위해 김효동과 牛來千里를 위원으로 선정했다.¹⁶⁷⁾ 이에 삼동면에서도 면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면민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주재소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했다.¹⁶⁸⁾

1933년 1월 1일 삼남면으로 합면되면서 면장은 舊중남면장인 김원룡이 계속하고 면사무소는 舊삼동면에 위치하게 되었다.¹⁶⁹⁾ 그러나 면소이전을 두고 계속해서 두 면민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곽해진이 삼남면의 면장을 하고 있을 때 면사무소의 서류와 집기들이 힘에 의해서 옮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¹⁷⁰⁾ 양쪽 마을에 갈등 관계가 계속되다가 결국 1938년 면협의회에서 舊중남면으로 면사무소 이전이 최종 결정되어 신축공사에 들어갔다.¹⁷¹⁾

1933년에 합면이 되고, 1938년 면사무소가 다시 중남면으로 이전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동안 양쪽 면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었다. 특히 곽해진이 면장을 하던 시기에 면소이전 문제가 실력행사로까지 나아갔다. 면소이전은 지역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쉽사리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구나 곽해진은 중남면 출신이라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에도 애매한 입장에 있었다. 오히려 자기 출신 지역의 이익을 위해 실력에 의해 면사무소가 옮겨지는 것을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164) 1944년에 작천정 정각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지역 주민들이 '작천정 보존회'를 조직했다. 회장은 언양의 유지였던 박현진이, 부회장에는 권항정과 유철순이 선출되었다. '작천정 보존회'의 회원들의 성금과 최상봉의 기부로 작천정 보수를 진행했다. 이같은 내용은 현재 정각에 걸려 있는 중수기에 기록되어 있다(삼남면지 편찬위원회, 『삼남면지』, 2002, 664쪽).

165)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1935~1936

166)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7년판, 1939년판)

167) 〈面所位置陳情〉 《동아일보》 1932년 11월 11일

168) 〈蔚山三同面民大會 警察이 禁止〉 《동아일보》 1932년 11월 20일

169) 〈二面을 廢合 三南面을 開始〉 《동아일보》 1933년 1월 4일

170) 한밤중에 삼남면사무소의 서류와 집기들이 청년들에 의해서 중남면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다. 중남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군청쪽에 아는 사람이 있었고, 관에서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한 후 면소를 옮겨왔다. 이에 반발한 삼동면의 청년들은 다시 이 서류와 집기를 원래 면사무소 자리로 옮겨오는 사건이 있었다(2003년 1월 22일 곽동하 구술 인터뷰).

171) 〈二面面所 新築〉 《동아일보》 1938년 11월 12일

곽해진은 1938년에는 언양을 떠나 충청도에서 장사를 하기도 했는데, 실패하고 1년 정도 후에 언양에 돌아왔다.¹⁷²⁾ 언양에 돌아온 후 중남수리조합의 사장을 역임했다. 곽해진은 삼남면장과 중남수리조합의 사장을 역임하면서 1930년대에도 지역엘리트로서의 활동을 지속했다.

김교경은 1930년대 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언양에서의 활동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 외에 다른 천도교계 지역엘리트들의 1930년대와 식민지 말기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식민지 말기 언양에서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세력은 약해지거나 당국의 식민지 지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곽해진을 제외한 나머지 천도교 신자들은 1930년대 후반의 지역 내 활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운동 역량이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규천과 유철순은 1945년 해방공간에서 지역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로 부각되었고,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이규천은 울산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유철순은 삼남면의 농민조합장이 되었다.¹⁷³⁾

이규천이 울산군 인민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도교에서 간부급 임원이었다는 것이 일정부분 작용했다.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이규천은 개명한 지식인, 지도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또 일제시기 경상남도 도평의회 의원이면서 울산의 유력한 인물이었던 안효식이나, 울산과 언양지역에서 독립운동 내지는 사회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규천에 대해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¹⁷⁴⁾ 그러나 행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규천은 곧 인민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뒤를 이어 고원우가 인민위원장이 되었다.

유철순의 경우 삼남면 농민조합장을 했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해방 후 이규천이 인민위원장을 하고 유철순이 삼남면 농민조합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일제말에도 약하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이규천의 경우 면협의회회원을 역임하면서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철순의 경우도 비록 1930년대 지역에

172) 곽동하(곽해진의 아들)의 구술에 따르면 곽해진은 본인이 면장을 할 때 발생했던 면소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짐이 되어 면장을 계속할 낫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떠났다고 진술했다(2003년 1월 22일 곽동하 구술 인터뷰). 그러나 면소이전 문제는 면장이 양쪽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무리였을 수도 있고, 곽해진이 중남면 출신이었다는 것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곽해진이 갑자기 언양을 떠난 충청도로 장사를 하러 떠난 이유에 대해 구술만을 통해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충청도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중남수리조합의 사장을 역임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곽동하의 구술에 의하면 곽해진은 충청도에서 돌아온 후 오래지 않아 병을 얻어 죽고 말았고, 더 이상의 활동은 하지 못했다.

173) 『울산광역시사-역사』에는 처음부터 울산군 인민위원장은 두서면의 고원우라고 되어 있으나 구술을 통해서 볼 때 이규천이 고원우에 앞서 인민위원장을 했다고 한다. 이준우와 곽동하는 이규천이 울산군 인민위원장이로서 연설을 했고 그 자리에서 “食衣爲天”이라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2003년 1월 22일 곽동하 구술 인터뷰, 2004년 4월 8일 이준우 구술 인터뷰).

174) 2003년 6월 18일 윤특조 구술 인터뷰, 2004년 4월 9일 이준우 구술 인터뷰, 2004년 3월 5일 홍성달 구술 인터뷰, 2004년 4월 12일 이철우 구술 인터뷰

서의 활동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지만 영향력을 일부라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규천과 유철순 외에도 해방 공간에서 황선운이 두동면 대한국민축성회에서 활동을 지속했고 이무종의 동생이었던 천도교인 이갑종은 해방 후 상북면장이 되고, 상북면 대한국민축성회에서 우익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이 천도교계 지역엘리트들은 해방공간에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등의 사건은 남한 내 천도교의 세력을 더욱 약화시켰고 언양의 천도교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했다. 울산의 경우 일제시기 말기로 가면서 천도교청년회의 활동 내용도 거의 보이지 않고 해방공간에서 천도교 교회는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다. 1969년에야 비로소 천도교 울산시교구를 다시 세운다. 반면 언양에서는, 1930년대에 활동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이규천, 유철순, 황선운 등이 모두 해방 공간에서 사회적 활동을 재개했다. 비록 해방공간에서의 움직임이 언양의 천도교나 교인들에게 핵심적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언양지역에서 천도교의 명맥을 이어오게 하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했다. 단절되지 않은 움직임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이들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교단을 추스르고, 지금까지도 천도교 언양교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언양에 천도교가 전래되고 점차 신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천도교 포교를 주도했던 초기 천도교도들의 활동 역량이 점차 강화되어 갔다. 활동역량의 강화는 언양 천도교세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천도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언양 3.1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비록 3.1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거리의 천도교회가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3.1운동은 이 운동을 직접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3.1운동을 계기로 천도교 신자들의 운동역량은 더욱 성장했고 1920년대 언양의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언양 천도교 신자들은 울산 읍내의 천도교 신자들의 활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울산과 언양은 일제시기에 동일한 행정구역이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서로 별개의 지역으로 존재했다. 각 지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서로 달랐고 이것은 천도교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울산 읍내의 신자들이 천도교 중앙총부의 지도를 받는 반면에 언양의 신자들은 천도교연합회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천도교연합회는 서북지역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언양에서는 천도교연합회 계열의 사회운동 단체가 결성되지 않았다. 이런 요인으로 1920년대 일반적인 사회운동의 양상과 유사한 방향에서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1920년대 언양 천도교 신자들의 사회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계몽적·개량적 성격의 지역 사회운동으로, 교육운동과 언론활동, 개량주의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실례로 양정학원, 보통학교 설립, 작천정환매입문제, 중남수리조합 활동, 언론활동, 사사회 활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혁신 청년회를 중심으로 교육운동, 청년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언양청년회, 시대청년회 활동과 농민조합 결성 및 운영 등이 이에 속한다.

사회운동은 두 부분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실제 활동 과정에서는 공유되는 부분이 존재했다. 활동의 이전부터 서로 연원과 사회적인 관계로 결합되어 있었고, 종교활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천도교 신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운동을 전개한 배경에는 천도교가 있었다. 이 때 활동했던 천도교인들 중 다수는 유력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고, 뛰어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공직에 임명된 이도 거의 없었고,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도 드물었다. 가문의 유력성 대신에 1910년대 성장한 천도교세가 있었고, 3.1운동을 주도하면서 활동 역량을 축적했다. 천도교의 근대 지식 및 사상을 통해 개명된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천도교 신자들이 서로 활동을 공유하면서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즉 천도교를 통해서 지역엘리트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로 들어가면서 일제의 식민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지역의 많은 사회운동 단체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강제로 해산됐다. 이것은 언양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대륙전쟁의 시작으로 식민지 말단에서부터 수탈이 이루어지고 사상적인 통제도 심해졌다. 이 와중에 천도교 중앙교단은 친일협력행위를 했고 지역의 천도교도들에게 반발을 사기도 했다.

1930년대 들어서면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활동이 위축된다. 교단의 친일화와 일본의 탄압으로 활동의 폭이 좁아졌다. 언양 지역민들이 지역발전과 개발 문제에 주로 관심을 두면서 언양의 지역사회운동이 재편되었다. 지역엘리트의 저항적 성격의 운동은 활동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개량화한 일부 천도교 신자들만 1930년대 언양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유철순이 중남수리조합에서, 이규천이 상북면협의회에서 활동을 했다. 곽해진은 삼남면장과 중남수리조합 사장을 역임하면서 1930년대 후반까지 언양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천도교 신자들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천도교계 지역엘리트 활동의 위축은 언양 천도교세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언양의 천도교인들은 민중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해방공간에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규천이 인민위원장으로, 유철순이 삼남면 농민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황선운과 이갑중처럼 우익활동에 참여한 이도 있었다. 그러나 뒤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시대가 격변하면서 이들의 활동은 어떤 뚜렷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오히려 분단과 함께 남한의 천도교세가 급격히 약해져 교구의 운영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해방공간에서의 단절되지 않은 움직임은 통해 언양교구를 계속 지속해나갈 동력을 제공했다.

이상에서 일제시기 언양 천도교계 지역엘리트의 사회운동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언양 지역에는 당국의 지배와 피식민지민의 저항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배, 저항, 협력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지역민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었고 지역사회의 변화는 다시 지역민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 당국의 식민지배 방식의 변화가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다. 소수의 활동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에, 지역의 한 활동경향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일제시기 지역의 모습과 그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역사 연구가 가지는 다각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신문·잡지 및 자료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외신문》 《조선중앙일보》 《신한민보》 《황성신문》 《해조신문》

『天道教會月報』 『新人間』 『開闢』

천도교 언양교구, 《備考帳》·《淵源錄》·《誠米代金領收證》·《公函》

조선총독부, 《總督府所屬官署職員錄》·《官報》 《조선신사보감》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조선총독부 경무국, 《高鍾警高秘》

울산군, 『蔚山案内』, 울산군, 1917

蔚山政策研究所 獨立運動史 再照明委員會, 『蔚山の 獨立運動史』, 2008

彦陽鄉校誌 編纂委員會, 『彦陽鄉校誌』, 2006

울산·울주향토사 편찬위원회, 『울산·울주향토지』, 1978

삼남면지 편찬위원회, 『삼남면지』, 2002

상북면지 편찬위원회, 『상북면지』, 2002

언양읍지편찬위원회, 『언양읍지』, 2001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5

이동초, 『천도교회 종령존안』, 모시는 사람들, 2005

崔起榮·朴孟洙 編, 『韓末天道教資料集』 2, 國學資料院, 1997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울산지역사연구 결과보고서』 (2002~2004년),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KRF-2002-072-AM1007)

2. 저서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6, 1973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아카데미, 2009

윤희면, 『朝鮮後期 鄉校研究』, 일조각, 1990

이춘걸, 『(正史)3.1운동』, 도서출판 처용, 1998

이현희, 「울산교구탐방기」 『동학혁명과 민중』, 대광서점, 1986

조경달/허영란譯, 『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2009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선인, 2006,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허영란, 『일제시기 장시 연구 - 5일장의 변동과 지역주민』, 역사비평사, 2009

3. 논문

- 김경애, 『동학, 천도교의 남녀평등 사상에 관한 연구 : 경전, 역사서, 기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1984
- 김민철, 『조선총독부의 촌락지배와 촌락사회의 대응 -1930~40년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승,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 박정숙, 『朝鮮後期 中央政界의 政治活動에 따른 鄉班의 生存戰略과 社會地位 維持-彦陽 靈山 辛氏 家門의 事例』,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 성주현, 『천도교청년당(1923-1939)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 이동근,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용창, 『1920년대 천도교의 분류와 민족주의 운동』,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장미정, 『울산지역의 3.1운동』,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정경숙, 『天道敎 女性團體에 대한 一研究 : 1920年代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정용서, 『일제하 해방후 천도교세력의 정치운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홍은정, 『일제시기 면직원의 존재형태와 해방 후 활동 -울주군 상북면 사례-』,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강대민, 「韓末 鄉校儒林의 動向 研究 -嶺南地方의 鄉校를 中心으로-」 『부산사학』 17호, 1989
- 김대호, 「1910~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 -경성신사의 운영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2008
- 김석희, 「朝鮮後期 慶尙道彦陽縣戶籍大帳에 관하여」 『부대사학』 제7집, 1983
- 김승, 「일제하 연양지역 민족해방 운동의 성장과 발전」 『부대사학』 제28·29집 합본, 2005
- _____, 「한말 일제하 울산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한국민족문화』 26, 2005
- 김익한, 「일제하 한국 농촌사회운동과 지역 명망가」 『한국문화』 17호, 1996
- 김정인, 「1910~25년간 천도교 세력의 동향과 민족운동」 『한국사론』 32, 1994

- _____, 「1910년대 『천도교회월보』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한국문화』 30, 2002
- _____, 「『만세보』를 통해서 본 천도교의 정치개혁론」 『동학연구』 제13집, 2003
- _____,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역사와 현실』 57, 2005
- _____, 「일제강점기 향교의 변동 추이-향교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2006,
- 남연숙, 「朝鮮後期 鄉班의 居住地 移動과 社會 地位의 持續性(1)」 『한국사연구』 83, 1993
- _____, 「朝鮮後期 鄉班의 居住地 移動과 社會 地位의 持續性(2)」 『한국사연구』 84, 1994
- 문영주, 「1920~1930년대 금융조합 유치운동과 지역사회」 『역사문제연구』 21, 2009
- 박찬승, 「근현대 당진지방의 정치사회적 동향과 지역엘리트」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7권 제2호, 2004
- 박현서, 「삼일운동과 천도교계」 『삼일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 성주현, 「1920년대 경기지역의 천도교와 청년동맹활동」 『경기사학』 4, 2000
- _____, 「일제하 만주 지역 천도교인의 민족운동」 『동학학보』, 2003
- _____, 「1920년대 상해지역 천도교인의 활동과 민족운동」 『문명연지』 16, 2006
- _____, 「일제하 만주지역의 천도교의 포교와 조직(1900-1920)」 『동학연구』 12, 2002
- _____, 「1930년대 만주지역 천도교와 그 활동」 『동학연구』 16, 2004
- 손숙경, 「조선후기 경남 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과 수용 형태」 『부산사학』 34호, 1998
- 안건호·박혜란,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 윤해동, 「한말 일제하 천도교 김기전의 ‘근대’ 수용과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 이용기, 「일제시기 면 단위 유력자의 구성과 지역정치」 『대동문화연구』 제67집, 2009
- _____, 「일제시기 지역사회에서 전통적 권위질서의 지속과 변용」 『역사문제연구』 21, 2009
- 이준식, 「최동희의 민족혁명론과 코민테른」 『역사와 현실』 32, 1999
- 장석만, 「3.1운동에서 종교란 무엇인가」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출

- 관부, 2010
- 장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역사와 현실』 37, 2000
- 정미성,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전반기 조선총독부의 면 재정 정비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현실』 제56호, 2005
- 정연태, 「경남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 정태현, 「1910년대 식민농정과 금융수탈기구의 확립과정」 『3·1 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 _____, 「천도교청년동맹의 조직과 활동」 『충북사학』 9, 1997
- _____, 「천도교구파와 신간회」 『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 _____, 「전남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동학연구』 17, 2004
- 지수걸, 「조선농민사의 단체 성격에 관한 연구 ; 천도교청년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06, 1985
- _____, 「일제시기 충남 부여·논산군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한국문화』 35호, 2005
- 허수, 「1920년대 개벽의 정치사상」 『정신문화연구』 112, 2008
- _____, 「1920년대초 『개벽』 주도층의 근대사상 소개양상」 『역사와 현실』 67, 2008
- 허영란, 「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의 전개과정 - 장시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 『역사문제연구』 제21호, 2009
- _____,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1919년 3월 1일에 묻는다』, 성균관대출판부, 2010

<부록1> 《淵源錄》

전도사氏名	지위	이름	연령	주소
임명수林明洙	호주	최해규崔海圭	39	울산군 상북면 송대리
	처	김규화金圭嬾	40	
	부	최석호崔錫浩	62	
	모	장석화張錫嬾	63	
	자	최학식崔學植	13	
	녀	최학순崔學順	6	
최해규崔海圭	호주	김교경金敎慶	49	울산군 하북면 산전리
	처	정경화鄭慶嬾	50	
	자	김정희金正曦	31	
	자처	이응선李應先	20	
	자	김정규金正珪	23	
	자	김정옥金正鈺	19	
	자	김정기金正琪	16	
	자	김정곡金正珏	13	
	호주	최해식崔海拭	37	울산군 중남면 신화리
	처	이식화李拭嬾	37	
	자	최동오崔同五	20	
	김교경金敎慶	호주	이규천李圭千	45
처		최덕화崔德嬾	20	
자		이종만李鍾萬	23	
녀		이선주李善朱	2	
호주		곽해진郭海鎭	33	울산군 중남면 신화리
처		김주화金周嬾	19	
모		김길천金吉千	54	
제		곽봉국郭奉國	21	
제부		김복화金福嬾	18	
제녀		곽봉군郭奉君	15	
녀		곽순조郭順祚	16	
녀		곽정순郭正順	11	
		곽정숙郭貞淑	7	
이규로李圭瑠		호주	김정권金正權	45
	처	박권화朴權嬾	37	
	녀	김남숙金南淑	11	
	녀	김남출金南出	9	
	호주	이규장李圭章	29	울산군 상남면 거리
	처	최장화崔章嬾	21	
	호주	최해선崔海璿	22	울산군 상남면 길천리
	처	이선화李璿嬾	22	
	녀	최학장崔學璋	3	

곽해진郭海鎭	호주	유철순俞哲淳	36	울산군 중남면 교동리
	처	김철화金哲嬋	26	
	자	유봉식俞鳳植	8	
	녀	유내옥俞內玉	5	
	호주	윤기호尹琪昊	41	울산군 중남면 신화리
	처	박호화朴昊嬋	35	
	녀	윤상이尹尙伊	16	
	녀	윤두래尹斗來	10	
	녀	윤득상尹得尙	8	
	녀	윤원조尹元祚	4	
	녀	윤분조尹粉祚	2	
	호주	곽해천郭海千	41	울산군 중남면 신화리
	처	변천화卞千嬋	42	
	녀	곽차선郭且善	13	
	녀	곽필선郭畢善	10	
	녀	곽정선郭貞善	7	
자	곽정용郭正龍	3		
윤기호尹琪昊	호주	정덕기鄭德基	45	울산군 중남면신화리
	호주	고명우高明友	38	울산군 중남면신화리
	처	장명화張明嬋	25	
	모	노순이盧順伊	62	
	녀	고아지高阿只	6	
	녀	고도#高道#	2	
이규천李圭千	호주	김정하金正懽	40	울산군 중남면신화리
	처	허하화許懽嬋		
	모	손상하孫商嬋		
이종훈李鍾埴	호주	이학특李學特	34	
	처	정옥화鄭旭嬋	27	
	자	이병량李丙兩	8	
	녀	이선희李善喜	5	
유철순俞哲淳	호주	김기룡金沂龍	33	
	모	오척과吳尺果	64	
	제	김기득金琪得	21	
변상우卞相佑	호주	권의봉權宜鳳	29	울산군 삼동면 사촌리
	처	신봉화辛鳳嬋	17	
	녀	권두리權斗理	2	
이배식李培植	호주	이치덕李致德	24	울산군 상남면 거리
	모	최축성崔祝誠	54	
	매	이봉李鳳	19	
	매	이봉출李鳳出	16	
신임룡辛壬龍	호주	서익조徐益祚	22	울산군 삼동면 하잠리
	처	김익화金益嬋	24	

	모	신지랑辛芝朗	40	
	녀	서맹교徐孟嬌	6	
	녀	서순교徐順嬌	3	
	제	서갑조徐甲祚	17	
김문성金文星	호주	김소룡金小龍	23	울산군 울산면 교동
박지석朴志錫	호주	차덕줄車德茁	24	울산군 울산면 북정동
	처	최덕화崔德嬋	23	
	자	차재윤車載允	2	
백봉기白奉基	호주	박금화朴錦嬋	23	울산군 울산면 교동
최해식崔海植	호주	이종호李鍾灝	25	울산군 울산면 옥교동

<부록2> 《備考帳》

	1913	1914	1915		1917		1921	합계
	교구실 건축시 의연인원 및 금액	특별 기도미 대금	상춘원 매매시 회사인 및 금액		삼동면 전교실 매매시 의연인 및 금액		교구책무 보상	
강차석姜且石			1					1
곽해진郭海鎭	10	20	3	1.5			2	36.5
곽해천郭海千		10	2	액수 미상			0.2	12.2
권보운權寶運			1					1
고명우高明友					1		0.1	1.1
김교경金敎慶	10	10	2		0.5		2	24.5
김기주金奇柱					0.2		1	1.2
김기용金沂龍			액수 미상					
김기종金沂鍾			0.5					0.5
김로화金璐燁							1	1
김상도金相道			1					1
김석주金錫柱		10			0.3	2		12.3
김운제金運濟			1				0.1	1.1
김원덕金遠德			1					1
김응조金應祚							0.5	0.5
김정건金正楗			1		0.1		1	2.1
김정권金正權	20	10	3		1		2	36
김종술金鍾述			액수 미상					
김종로金鍾潞			1.5					1.5
김종율金鍾律			1					1
김지곤金智坤			0.3					0.3
김호준金浩俊							0.2	0.2
박규삼朴圭三							1	1
박기수朴淇洙	1							1
박기용朴基壙	1							1
박상기朴相鎡	1				1			2
박용하朴容夏			0.2					0.2
박장하朴章夏			1					1
백우석白佑錫							1	1
변억조卞億祚			0.5					0.5
변영선卞英善			1					1
변상우卞相佑			1				2	3

서용위徐龍違			0.3				0.3	
서익조徐益祚			2				2	
선성규宣成奎			1.3				1.3	
신은호辛銀浩			1.1				1.1	
신임룡辛壬龍			0.5			2	2	
신종식辛鍾式	1	10	2	1		0.1	14.1	
신태수辛泰洙			액수 미상					
심우식沈瑀植			0.5			1	1.5	
우진동禹進東			1.3				1.3	
유성건柳星鍵	8	10	2		0.4	1	21.4	
유성만柳星萬					0.2		0.2	
유정규柳汀圭	1				0.2	1	2.2	
유찬수俞贊秀						2	2	
유철순俞哲淳	1		1	1.5		2	5.5	
유치두柳致斗			액수 미상			0.1	0.1	
윤기영尹琪吳		10	2	액수 미상		0.5	12.5	
이규로李圭璐	270	10	3		1		284	
이규석李圭錫	3	10	1			0.5	14.5	
이규익李圭翼			1				1	
이규인李圭寅						0.5	0.5	
이규장李圭章					1	1	2	
이규천李圭千	6	10	3		1	2	22	
이규화李圭華						1.5	1.5	
이두회李斗會	1						1	
이득율李得律			1				1	
이배식李培植		10	2		0.2	2	14.2	
이봉수李鳳樹					0.1		0.1	
이시영李始榮			1		0.2	0.5	1.7	
이용도李龍道			0.5				0.5	
이장식李章植					0.1	1	0.5	1.6
이중능李鍾能			0.5				0.5	
이중훈李鍾煥	6	10	2		0.2	0.5	18.7	
이진필李進弼			1				1	
이학특李學特	2				0.1	2	0.5	4.6
장진환張軫煥	1						1	
정덕기鄭德基			1			0.1	1.1	
정목조鄭穆朝			1				1	
정석룡鄭錫龍			0.5					

차두수車斗壽			1					1
최해식崔海弼					0.5	1		1.5
최해규崔海圭		10	3		5			18
한영문韓榮文	1							1
한영석韓榮碩							1.5	1.5
한용교韓庸敎	1							1
한중교韓重敎	4	10			0.5			14.5
중앙총부 中央總部	200							200
	549	160	58.5	4	14.8	6	34.9	827.2

<부록3> 언양 지도(2010년 현재)



① 언양 3.1운동 발발지

② 언양향교

③ 작천정

④ 천도교 거리 교회, 양정학원(터)

* 주요 천도교인 거주지 : 상북면 - 거리, 길천리, 산전리
삼남면 - 신화리, 교동리

<ABSTRACT>

A Social Movement of Cheondo-gyo party Local Elite in Eonyang during Colonial Period

Jung Gye-hyang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In recent times, many studies related to the area history have already been going full-speed ahead, the trend of studies o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changing. Out of the dichotomous study on colonial exploitation or resistance, there have been more increasing attention to pay to take a close look at those who was real colonial public's life at that time.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becoming an independent state and modernizing was the key issue to korean public, those who conceive this issues lead the social movement like a youth movement, a labor movement, a peasant movement in each region. The key issue is how can we conceptualize the leadership of this social movement on the colonial period.

There are some people who have a various purpose to lead the social movement in Eonyang during colonial rule. Some of them had accept 'Cheondo-gyo' and participated in the social movements in the region. Among those regions, Eonyang was traditionally much influenced by Catholics and Buddhism, Cheondo-gyo had less power around the Gyeongsang-do because the missionary work of Cheondo-gyo had usually done in the area of northwest. But in 1910's the member of Cheondo-gyo party in Eonyang has emerged as a considerable forc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social movements in the region.

So far, most of studies was about the supreme religious body and the leadership. Recently there are some increasing studies about regional activity of Cheondo-gyo society, but those tend to be centered to some specific cases at a restrcited time so far. Some treated the activity of

Cheondo-gyo society but too concentrated to the 'Cheondo-gyo' as a religion to see about the specialties as a region. There can be partly founded some contents of activities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because the racial movement and the social movement of Cheondo-gyo society was related to the reality of colony and had its religious organization at that time. So we could possibly see the feature of local society through the social movement of Cheondo-gyo society.

This article takes the research subject with the social movement of Cheondo-gyo society in Eonyang. They're almost newly recognized society in the region since Cheondo-gyo was introduced. Throughout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became the member of Cheondo-gyo society, participated in the social movement in the region, saw much changes that their influence has waned. That was proceeded by reflecting the feature of Eonyang local community and the change of the way of Japanese colonial rule. This article aim to reveal the specific feature of Cheondo-gyo devotee in Eonyang over Japanese colonial period, by doing this study, to take a careful look at the feature and change phase of Eonyang local community.

The first materials used for this article are directly related to the activity of Cheondo-gyo. 《Eoywonlok》(연원록), the daily record of missionary work remained in Eonyang parish and 《Beegozang》(비고장), A book compiled by the breakdown of contributions of Cheondo-gyo devotee, 《Kongharm》(공함), an official record of Cheondo-gyo, helped to feel out the aspect and the activity of Cheondo-gyo devotees. It is analyzed by the past newspapers, study articles, the docu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hat regional social activity was made by Cheondo-gyo devotees. And oral interview was also used to make it clear what was not remained by document.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s. Firstly, in chapter 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related to the social movement of Cheondo-gyo devotee in Eonyang would be revealed, existing study history on the racial movement of Chendo-gyo so far would be summarized

In chapter two, it would be described how cheondo-gyo was introduced to Eonyang and the process of missionary work,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devotees. Also, there would be study on the role of Cheondo-gyo devotees on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in

Eonyang and the summary of influence on Cheondo-gyo devotees in Eonyang by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Since Choi, Hye-Kyu (최해규) was confirmed into Cheondo-gyo in 1910, the parish in Eonyang was established and the Cheondo-gyo was introduced. The missionary work was done on the basis of the various social relationship like brothers and sisters, the neighborhood, a family, school ties, a matrimonial relation and so on, and when it was jointed with the yeonwon(연원),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otee was to develop and grow. Their influence became wider gradually then ever so they was the ceter force of demonstrations of three cheers in Eonyang in 1919.

In chapter three, there are analysis about social movement of Cheondo-gyo devotees in Eonyang in 1920's. In that decade, the activities of Cheondo-gyo devotees in Eonyang was performed separately with those activities in Ulsan. In 1914, although Eonyang was united into Ulsan, their activities was still worked separately as another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social network. With this influence, they got to have different order as parish with devotees in Ulsan. The devotees in Eonyang was placed under the control of federation of Cheondo-gyo, in which influence was not so strong, I Eonyang there are no operating group like Cheongdo-Gyo Yusin-CheongNyun-Society.

The social movement of Cheondo-gyo devotee in Eonyang was developed like general local community movements in 1920 and separated from their activities. One of the two was performed as local community movements as an education campaign, a speech service, an organization of reformism etc. The other one was a youth movement performed by young adult group of Cheondo-gyo in HyungSin-a young men's association. The movement was separated into each but there are much common part in their activities. There was no concrete movement organization but they had continuous relationship and place to communicate up till 1920. As they have developed social movements, it was Cheondo-gyo to be intersection of them. So they could perform movements role as local elite through this Ceondo-gyo.

In chapter four, it is described that there was Cheondo-gyo's force shrinking and their new seek in 1930. In this times, Colonial system was becoming more harsh, the activities of social organization was much tightly retracted. On Eonyang's Cheondo-gyo side, their activities narrowed more and more by Japanese oppression and pro-Japanese. In

1930's, as citizen of Eonyang paid interest on the regional development, there were some changes in local community movements in Eonyang. There was where local elite who have communication skill with the authorities by lawful stepped in. The social movement of local elite Cheondo-gyo was affected. Some adapted devotee continues to perform movements in Eonyang in 1930's but the others didn't have more activities. Their shrinking followed the whole parish's shrinking. But they seek to new way out, their continuous relationship influenced on the parish of today so far.

Until now this research looked over the images of past Eonyang in colonial period. There were more than the rule of authorities and the resistance of citizens of colony. There were the complex body of rule and resistance, cooperation and so on. The activity of citizens led the change in regional community and influenced on another citizens. There were the variable by colonial rule's change. Through this research, we can understand with multilateral vision by looking at the regional life lived in various ways specifically in colonial period.

주요어 : Local history, Cheongdo-Gyo, Eonyang, Ulsan, 3.1 Independence Movement, federation of Cheondo-gyo(천도교연합회), Yangjunghakwon(양정학원), Sidae-Youngman society (시대청년회), Sasih-society(사사회)
